

조셉 케쉬시안 | 2016년 1월



Asan Report

아랍 걸프 군주국의 왕위 승계 문제

조셉 케쉬시안 | 2016년 1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킹 파이잘 이슬람 연구센터

1983년 설립한 킹 파이잘 이슬람연구센터(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KFCRIS)는 파이잘 국왕의 뜻을 널리 알리고 이슬람, 정치, 사회, 유산 홍보를 위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조셉 케쉬시안 Joseph A. Kéchichian

조셉 케쉬시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킹 파이잘 이슬람연구센터(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KFCRIS) 선임 연구위원이다.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 Kéchichian & Associates, LLC의 CEO이며 아랍에미리트 최고의 영자 일간지 <걸프뉴스 Gulf News> 선임 논설위원이다. 앞서, 케쉬시안 박사는 미국 LA 주재 오만왕국 명예 영사(2006~2011), 미 중동연구소 연구위원(2009~2010, 2012~2013),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1998~2001), 미 랜드연구소 정치학자(1990~1996),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연구위원(1989), 버지니아대학교 교수(1986~1989)를 역임했다.

케쉬시안 박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과 정치 개혁 *Legal and Political Reforms in Sa'udi Arabia*》 (Routledge, 2012)과 사우디아라비아 왕비 이파트 알 투나안의 전기 《이파트 알 투나안: 아라비아의 왕비 *Iffat al Thunayan: An Arabian Queen*》 (2015)를 출간했다. 이밖에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원한 왕 *Faysal: Saudi Arabia's King for All Seasons*》 (2012), 《아랍 군주국의 권력 승계 *Power and Succession in Arab Monarchies*》 (2008), 《왕세자: 리더십 매뉴얼 *The Just Prince: A Manual of Leadership*》 (R. Hrair Dekmejian과 공저, 2003),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랍 걸프 국가 *Iran, Iraq, and the Arab Gulf States*》 (2001), 《삼십 년의 세기: 셰이크 자이드와 아랍에미리트연합 *A Century in Thirty Years: Shaykh Zayed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editor, 2000), 《오만과 세계: 독립 외교 정책의 출현 *Oman and the World: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1995) 등이 있다. 케쉬시안 박사는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아랍어,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이란어에 능통하다.

목차

서론	09
바레인, 알 칼리파 가문(Bahrain and the Al Khalifah)	12
쿠웨이트, 알 사바 가문(Kuwait and the Al Sabah)	19
오만, 알 사이드 가문(Oman and the Al Sa'id)	28
카타르, 알 타니 가문(Qatar and the Al Thani)	38
사우디아라비아, 알 사우드 가문(Saudi Arabia and the Al Sa'ud)	48
아랍에미리트연합, 알 나흐얀-알 마크툼 가문(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Al Nahyan-Al Maktoum Duopoly)	62
아부다비, 알 나흐얀 가문(The Al Nahyan of Abu Dhabi)	63
두바이, 알 마크툼 가문(The Al Maktoum of Dubai)	66
샤르자, 알 카시미 가문(The Al Qasimi of Sharjah)	68
라스 알 카이마, 알 카시미 가문(The Al Qasimi of Ras Al-Khaimah)	71
아즈만, 알 누아이미 가문(The Al Na'aimi of 'Ajman)	73
움 알콰인, 알 무알라 가문(The Al Mu'allah of Umm Al-Qiwain)	75
푸자이라, 알 샤흐키 가문(The Al Sharqi of Fujairah)	76
결론	79

그림

[그림 1]	바레인 왕: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12
[그림 2]	쿠웨이트 왕: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19
[그림 3]	오만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28
[그림 4]	카타르 왕: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38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48
[그림 6]	UAE 대통령(아부다비):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63
[그림 7]	UAE 부통령(두바이):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66

표

[표 1]	바레인 알 칼리파 가문 주요 인물	15
[표 2]	쿠웨이트 알 사바 가문 주요 인물	24
[표 3]	오만 알 사이드 가문 주요 인물	32
[표 4]	카타르 알 타니 가문 주요 인물	46
[표 5]	사우디아라비아 알 사우드 가문 주요 인물	53
[표 6]	살만 국왕의 조직개혁	56
[표 7]	UAE 알 나흐얀-알 마크툼 가문 아부다비 및 두바이 주요 인물	62
[표 8]	UAE 샤르자, 알 카시미 가문 주요 인물	68
[표 9]	UAE 라스 알 카이마 가문 주요 인물	71
[표 10]	UAE 아즈만, 알 누아이미 가문 주요 인물	74
[표 11]	UAE 움 알콰인, 알 무알라 가문 주요 인물	75
[표 12]	UAE 푸자이라, 알 샤흐키 가문 주요 인물	76

서론

2011년 이후 발생한 민주화 혁명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정책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했다. 정책 분석가들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권력 승계 분야를 포함해 대부분 아랍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10여 년 전, 이보다 앞서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아랍의 세 군주국이 표면적으로 순조롭게 왕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1999년을 ‘변화의 해’라고 불렀다. 다음 해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무사히 부자 세습을 마쳤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카타르도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권력을 교체했다. 반면 21세기 초 10년 동안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예멘에서 폭력적으로 정권이 교체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2015년 1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Abdullah bin ‘Abdul ‘Aziz) 국왕이 서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권 승계는 다른 아라비아 반도 국가와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를 띠었다. 비관적이고 암울한 예측이 분분했다. 결과적으로 살만 빈 압둘 아지즈(Salman bin ‘Abdul ‘Aziz)가 통치자로 결정돼 뜻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평화적으로 왕권을 승계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승계를 마무리했다. 반면 대부분 중동 국가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팽배했다.

아랍과 무슬림 세계에서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적 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특별한 이슈였던 적이 없으며, 이 개념은 오늘날에 와서야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내내 여러 국가에서 공화 정권이 국왕을 끌어내 군부 독재나 의회 민주주의가 들어선 다음에도 장자 상속에 의한 권력 승계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다. 심지어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예멘 및 여타 국가에서는 아랍 세계 중심부를 흔들었던 2011년 아랍의 봄 전까지 장자 승계를 권장했다. 특히 바레인과 카타르 같은 아랍 군주 국가는 장자 승계 방식을 고수했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주로 형제간 권력 승계 방식을 채택했다.¹ 외부 세력은 대부분 민감한 정치 사안에 집중했지만 이를 넘어서 기존 승계 방식도 조종하려 했다. (예상했듯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실제 아랍 국가, 특히 군주 국가는 내부 화합과 가문 간 합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승계 문제에 외세가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부분 아랍 군주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군주 국가들처럼 제도가 복잡하진 않았다. 이들은 왕권 승계 과정의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계승자를 선별하는 데 전념했다. 외국 정부는 새롭게 떠오르는 지도자를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정책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라비아 반도 국가를 포함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에 동조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지만,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나라의 권력 승계는 미국에 불확실한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아랍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은밀하고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계승자 선정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사실 권력 승계 과정은 여전히 극소수 사람만이 논의하고, 독재자가 누리는 특권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 아랍의 지도자 누구도 다른 뜻을 품거나 권력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에 도움이나 지도를 요청한 적이 없다. 외부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변화를 주시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는 것뿐이었다.

이 리포트에서는 2008년도에 다뤘던 아랍 걸프 6개 군주국의 권력 승계 진행 과정을 업데이트하고, 현재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다루려고 한다.²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특히 오만과 쿠웨이트, UAE에서도 권력 승계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랍 걸프 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동맹국들이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나에 따라 지역 안정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동맹국과 걸프 국가들 앞에 분명 잠재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향후 통치 세력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또는 급작스

럽게 진행될지, 평화롭게 나아갈지 난항을 겪을지에 따라 보수적인 왕국들이 취할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1. 아이러니하게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조차 그의 아들 함자(Hamzah)를 확실한 후계자로 정했다. 2015년 5월 미국 CIA정보본부(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가 번역 출간한, 빈 라덴의 파키스탄 은신처 아보타바드 저택에서 발견한 편지 참조, "Letter from Hamza to Father," July 2009, at <http://www.dni.gov/files/documents/ubl/english/Letter%20from%20Hamzah%20to%20father%20dtd%20July%202009.pdf>; "Letter to Hamza," n.d., <http://www.dni.gov/files/documents/ubl/english2/Letter%20to%20Hamza.pdf>.
2. 이 연구는 조셉 케쉬시안 박사의 Joseph A.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in Arab Monarchies: A Reference Guide*,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8. 을 토대로 한다. 2008년 발표된 자료 일부를 활용해 이번 리포트의 배경을 설명하고 분석 자료로 제공했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6개 국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특별 섹션을 업데이트했다.

아랍 걸프 군주국의 왕위 승계 문제

바레인, 알 칼리파 가문

[그림 1] 바레인 왕: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자료: Amr Abdallah Dalsh © REUTERS

바레인의 국토는 그리 넓지 않지만 알 칼리파 왕가(Al Khalifah dynasty)는 수천 명으로 추산되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집권 가문에 속한다. 2002년 바레인이 점진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알 칼리파 가문은 세습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을 단행했다. 1973년 헌법은 가문 내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정 짓기 위해 장자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채택했고 명확한 승계 양식을 수립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알 칼리파가 종종 국가와 국민을 오만한 태도로 대하고, 바레인 사회가 걸프 지역 다른 곳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양극화됐다면’, 1994년과 2011년 사이 잇따른 봉기는 정권이 수세에 몰렸다는 의미였다.³ 1999년 하마드 빈 이사

(Hamad bin ‘Isa)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대다수 사람은 칼리파 빈 살만(Khalifah bin Salman) 총리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조카 뒤에서 실권을 행사할 것이며, 하마드가 오래 집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칼리파 총리가 자기 아들이 권력을 쥐도록 만들어 실질적으로 승계 계보가 바뀌리라 예측했다. 실제로는 장자 승계를 도입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했을 때, 알 칼리파 가문이 동의했기 때문에 바레인의 승계 체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고 튼튼했다. 문제는 지배 가문 내에 유력한 두 계파가 있어 알 칼리파 구성원들과 지지세력이 양분됐다는 점이다. 첫 번째 계파는 당연히 국왕을 주축으로, 총리가 이끄는 계파와 대결하고 있었다. 왕위 계승자이자 바레인 방위군의 최고 사령관 살만 빈 하마드(Salman bin Hamad)는 형제들과 함께 부왕을 지지했다. 반대로 셰이크 칼리파(Shaykh Khalifah) 총리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지지했다. 이로써 가문 내에 두 개 동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양극 체제라고 해서 동맹이 너무 소원해 단합할 수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듯 1999년 이후 바레인이 도입한 모든 개혁 조치는 정권과의 무력 충돌을 포함한 내부 갈등이 낳은 결과였다. 걸프 전역에서 이란과 미국 간 정치·군사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해군 제5함대가 섬나라 바레인 왕국에 주둔함으로써 바레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동안 바레인 왕족 가문 내부에서 혈통 간 분열이 심화됐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레인 왕국 내에서 경쟁 그룹 간 분열 때문에 반미 강경주의자들이 힘을 얻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⁴ 분명한 건 2011년 이후 바레인에서 봉기가 발생하자, 미국 시민과 군 당국은 페르시아만 중심부에 자리 잡은 중요한 해군 기지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3. J. E. Peterson, “The Nature of Succession in the Gulf,” *The Middle East Journal* 55:4, Autumn 2001, p. 588. See also Munira A. Fakhro, “The Uprising in Bahrain: An Assessment,” in Lawrence G. Potter and Gary Sick, eds., *The Persian Gulf at the Millennium: Essays in Politics, Economy, Security and Relig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pp. 167-189. 바레인 위기에 대한 최근 분석 평가 참조, Matthiesen, *Sectarian Gulf: Bahrain, Saudi Arabia, and the Arab Spring That Wasn’t*,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and Anna Fuchs, *Bahrain—The Exception in the Gulf*, Eberhard Karls University Tübingen: GRIN Verlag, 2013.
4. Charles Levinson, “A Palace Rift in Persian Gulf Bedevils Key US Navy Base,” *The Wall Street Journal*, 19 February 2013, p. A1, at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127887324595704578239441790926074>.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은 앞서 말한 알 칼리파 가문의 두 계파가 걸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가문의 분열과 연관됐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가문 내 반목 때문에 ‘카왈리드(Khawalids)’라고 불리는 왕족 내 계보가 선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서방과의 관계를 키워온 국왕과 대립했다는 것이다. 카왈리드 가문은 1869년부터 1923년까지 바레인을 통치한 이사 빈 알리 알 칼리파(Isa bin ‘Ali Al Khalifah, 1848~1932)의 이복형제 칼리드 빈 알리 알 칼리파(Khalid bin ‘Ali Al Khalifah, 1853~1925)의 후손이다. 이사 빈 알리 알 칼리파의 뒤를 이어 하마드 빈 이사(Hamad bin ‘Isa, 1932~1942), 하마드의 아들 살만 빈 하마드(Salman bin Hamad, 1942~1961), 이사 빈 살만(Isa bin Salman, 1961~1999)이 바레인을 통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슬람 강경주의자가 속한 지지 세력에 기반을 둔 카왈리드 계파가 가문 내에서 ‘오랫동안 소외’됐지만, 최근 들어 바레인의 보안 및 정보 부대, 사법부, 왕실부 같은 핵심 기관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평가는 런던에 있는 왕립국제문제연구소(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hatham House] 중동지역 전문가 크리스티안 울리크센(Kristian Coates-Ulrichse)의 “카왈리드는 지배 가문 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라는 견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⁵ 카왈리드의 득세를 우려하는 이들이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해 현재 승계 계보를 향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⁶ 이는 바레인 헌법이 장자 승계 제도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은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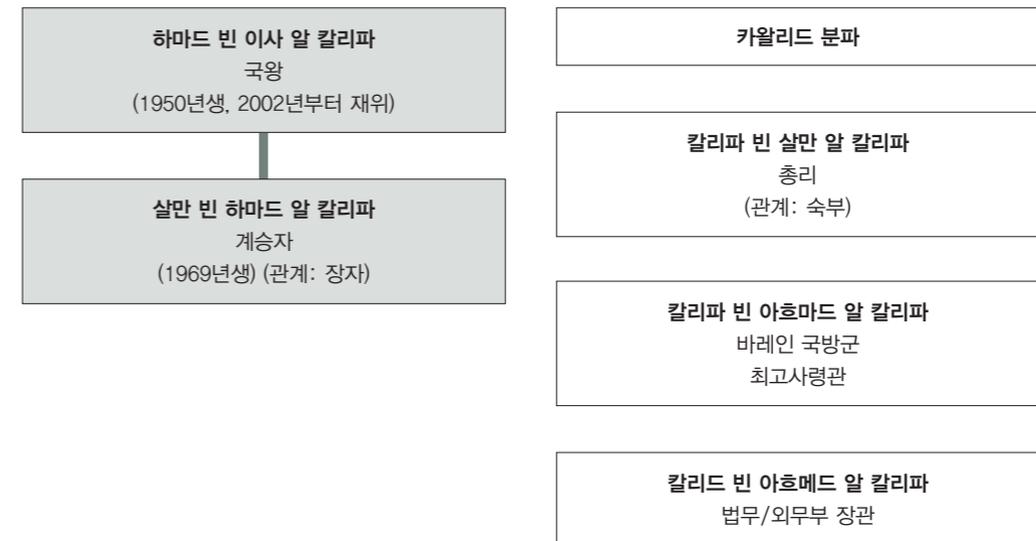
다른 바레인 전문가들은 카왈리드가 부상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중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가이자 바레인 전문가 에밀 나클레(Emile Nakhleh)는 단정할만한 증거도 없이 카왈리드 지도자들의 의중을 파악한 것처럼 한술 더 떠 모욕적으로 말했다. “국왕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카왈리드 계파 중 일부는 이제 다른 승계 계보가 통치 가문을 이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강력한 카왈리드 계파가 서방에 우호적인 국왕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국왕은 통치 가문에서 더 보수적인 세력들이 미국의 의도를 의심해서, 일부 저돌적인 신봉자들이 정치적 선동을 일으키도록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왕의 가장 큰 관

5. Ibid.

6.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67-101.

심사는 왕국을 번영시키고, 자기 아들이자 계승자 살만 빈 하마드 왕자를 왕좌에 앉히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승자는 2011년 이후 수도 마나마를 공격했던 주요 저항 세력이 지배층 인물 중에서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왕세자는 어떤 경우라도 왕가의 혈통이 바뀌면 알 칼리파 가문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침착하게 행동했다. 마찬가지로 카왈리드 지도자들은 살만 왕자가 통치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고, 국내에서는 시아파 야당에서조차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자살폭탄 사태에서 국가를 구할 만큼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여겼다. 국왕과 왕세자는 바레인에 대한 미군 관계자들의 열정이 식었다는 소문을 예의 주시했다. 사실 일 경우 상상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표 1] 바레인 알 칼리파 가문 주요 인물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Intelligence) 국장이자 태평양 사령부 최고사령관이었던 해군 제독 출신 데니스 블레어(Dennis C. Blair)는 바레인에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를 철수하라고 미 국방부에 촉구했다. 소식을 듣고 많은 바레인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블레어는 의회 관련 신문 〈더 힐 The Hill〉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육상에 있는 제5함대 사령부를 1993년 이전처럼 기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⁷ 블레어는 기고에서 “이 결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바레인의 억압적 체제 아래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개혁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킨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미군 기지가 취약해지므로 사령부 이전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군 관리들은 평화적, 점진적 방식으로 입헌 민주 군주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레인의 장기적 이익에 최선이라고 바레인 군 인사들을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바레인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바레인이 더 절실하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블레어의 견해가 옳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게 보인다.⁸ 하지만 럽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역사학과 토비 존스(Toby C. Jones) 교수가 일 년 전 <디 아틀란틱 The Atlantic>에 유사한 제목의 글을 기고했기 때문에 데니스 블레어가 이런 주장을 처음한 사람은 아니며, 블레어 자신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막왕국: 석유와 물은 어떻게 현대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었나 Desert Kingdom: How Oil and Water Forged Modern Saudi Arabia> 저자이며 <중동 리포트 Middle East Report> 편집장 존스는 블레어보다 한술 더 떠 말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으며, 또는 두 가지 이유 다 해당하므로” 즉시 해체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존스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걸프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미국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지역적 위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유연성을 제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군의 주둔 때문에 걸프 지역 우방국들이 무모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의 지도자들이 미군 내 지지자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주권국인 이웃 바레인에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의 지원 요청을 받아 동맹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GCC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존스의 주장은 거의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⁹

존스와 블레어는 미국이 바레인과 맺고 있는 중요한 유대관계로부터 거리를 뒤야 한다

7. Dennis C. Blair, “False Trade-off on Bahrain,” *The Hill*, 12 February 2013, at <http://thehill.com/blogs/congress-blog/foreign-policy/282337-false-trade-off-on-bahrain>. 블레어 제목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정부인권기구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이사회 일원으로서 이 기고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1년 이후 프리덤하우스는 바레인을 주목하며 알 칼리파(Al Khalifah)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다양한 문서를 작성했다.

8. Ibid.

고 주장했다. 다른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바레인과의 관계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실제로 왕가 혈통의 왕자들은 알 칼리파 가문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봉기 후유증을 주제로 건설적인 토론을 벌였다. 집권 가문과 카왈리드 가문 또는 다른 누구와도 심각하게 불화가 생기지 않았고, 아마 현재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12개 아랍 걸프 집권 가문을 포함해 모든 왕국에서 정부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바레인 최고 권력자이며 국왕의 숙부인 총리는 다음 정부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길 바랐다. 유력한 승계 후보자들은 1971년 12월 16일 취임한 80세의 칼리파 빈 살만 알 칼리파 총리의 자리를 노렸다. 카왈리드 가문이 복수로 대응하려 했던 2011년 시위에 고무된 일부 지배층의 견해와, 한층 온건한 자세로 운동권과 타협을 시도한 국왕의 입장은 서로 달라 보일 수도 있었다. 당시 바레인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 볼 때 평화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카왈리드 가문이 이겼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바레인 내 총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수니파 정부가 이란의 시아파 진영이나 국내 지역 통치자들과 대결하는 것과 같이 중동 전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도 마나마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면 향후 수십 년간 아랍 걸프 지역 다른 국가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GCC 국가들은 5년 전에 발생한 ‘아랍의 봄’을 세대 간 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통치 가문 내부와 통치 가문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건 어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연구의 목적과 장차 바레인의 미래에 카왈리드 지도자들이 맡을 중요한 역할을 고려했을 때, 카왈리드의 부흥은 최근 일이 아니라 1965년에 처음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칼리드 빈 아흐마드 알 칼리파(Khalid bin Ahmad Al Khalifah)는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Hamad bin Isa Al Khalifah) 현 국왕이 15살의 계승자일

9. Toby C. Jones, “Time to Disband the Bahrain-Based US Fifth Fleet,” *The Atlantic*, 10 June 2011, at <http://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1/06/time-to-disband-the-bahrain-based-us-fifth-fleet/240243/>.

때 후견인으로서 국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1971년 바레인이 독립하자, 계승자는 바레인 군대를 창설하기 위해 카알리드 가문에서 칼리드의 형제 한 명을 발탁했다. 결과적으로 카알리드는 충직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책임을 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권력에 올랐다. 같은 맥락으로 1999년 하마드 왕자가 즉위한 이후 카알리드 출신 유력 측근 두 명이 함께 승진했다. 첫 번째 인물은 칼리드 빈 아흐마드 빈 무함마드 알 칼리파(Khalid bin Ahmad bin Muhammad Al Khalifah)다. 사실상 국왕의 수석 보좌관인 왕실부 장관에 임명됐다. 두 번째는 바레인 방위군 총사령관 칼리파 빈 아흐마드 알 칼리파(Khalifah bin Ahmad Al Khalifah)로 바레인 군 최고사령관으로 승진했다. 칼리드 빈 아흐마드 빈 무함마드 알 칼리파의 조카 아흐마드 아티야탈라(Ahmad Atiyatallah)는 바레인 정보 기구 수장이 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과 매우 가까웠다.¹⁰ 세 명 모두 이란이 바레인 내 시아파를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당연히 모든 침해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명도 국왕과 계승자, 다른 가문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1년 봉기 이후 미국의 미온적인 지원에 실망했다. 그런데도 바레인과 알 칼리파 가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약속을 그다지 의심하지 않았다. 이들은 바레인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미국이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통치 가문을 저버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레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주요 서방 정부와 지역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 바레인은 여전히 중요한 나라였다. 살만 왕세자가 왕권을 계승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누가 바레인의 통치자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10. Kenneth Katzman, *Bahrain: Reform, Security, and US Policy*, Report Number 95-1013,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9 June 2012, p. 1.

쿠웨이트, 알 사바 가문

[그림 2] 쿠웨이트 왕: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자료: Carlo Allegri © REUTERS

1756년 이후 소규모 왕국 쿠웨이트의 모든 통치자는 셰이크 사바(Shaykh Sabah)의 직계 후손이었다. 가문 위원회는 북부 무역항 도시를 근거지로 거의 3백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 우투브(Utub) 부족 출신의 사바를 통치자로 세웠다. 실제로 쿠웨이트 역사를 주름잡은 사람은 1896년부터 1915년까지 통치한 무바라크 대제 즉, 무바라크 알 카비르(Mubarak al-Kabir)였다. 무바라크는 가문 위원회를 거치지도,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권력에 오르지도 않았다. 대신 무바라크도 '대제'라는 칭호를 가진 통치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적법한 통치자였던 이복동생을 살해하고 권력을 잡았다. 가족 내부에서 격렬한 충돌이 있었음에도 무바라크는 영국에 의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마 오스만 제국을 선호했던 죽은 형과 차별화하기 위해) 쿠웨이트는 1899년 영국과 협정을 맺고 보호국 지위를 얻었다. 이후 영국은 사실상 쿠웨이트 왕국의 외교와 국방 업무를 관장하게 됐다.¹¹

무바라크가 통치한 이후 쿠웨이트는 형제가 왕권을 이어받는 형제 승계에서 가문의 두 계파가 번갈아 왕을 배출하는 한층 평화적인 승계 제도로 전환했다. 그 결과 무바라크의 장남 자비르(Jabir, 통치 기간 1915~1917)와 차남 살림(Salim, 통치 기간 1917~1921)이 무바라크의 뒤를 이었다. 살림의 후계자는 자비르의 아들 아흐마드(Ahmad, 통치 기간 1921~1950)였고, 아흐마드가 타계하자 순서를 바꿔 압둘라 빈 살림(Abdallah bin Salim, 통치 기간 1950~1965)이 권력을 차지했다. 압둘라 빈 살림은 실질적으로 쿠웨이트의 진정한 아버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압둘라는 영국이 쿠웨이트의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던 시기에 쿠웨이트를 발전시켰고 확실한 정치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부여했다. 알 사바 부족 주요 족장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현명한 지략을 펼쳐 정치 평론가들도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냈다. 두 가문이 번갈아 집권하는 방식은 1965년 압둘라 빈 살림에 이어 형제 사바 알 살림(Sabah al-Salim, 통치 기간 1965~1977)이 승계했던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1915년 이후 순조롭게 진행됐다. 또 다른 예외는 자비르 알 아흐마드(Jabir al-Ahmad)가 타계한 후 2006년 사드 알 압둘라(Sa'ad al-'Abdallah)가 권좌에 올랐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지 못한 경우였다. 거동이 불편했던 군주는 이 사태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결국, 2006년 1월 24일 가문 회의 고위 대표들이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Sabah al-Ahmad Al Sabah)를 왕위 계승자로 결정해 병에 시달리던 셰이크 사드 알 압둘라는 단 9일간의 통치를 마쳤다. 쿠웨이트는 심각한 왕권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바 알 아흐마드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이전 정부에서 내무부 장관이었던 형제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비르 알 사바(Nawwaf al-Ahmad al-Jabir Al Sabah)를 계승자로 책봉했다. 또한, 국왕은 왕실 장관을 맡고 있던 조카 셰이크 나세르 무함마드 알 아흐마드 알 사바(Shaykh Nasir Muhammad al-Ahmad Al Sabah)를 총리에 임명하고, 통치자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왕실 장관 자리에 사바 알 아흐마드의 아들 나세르 알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자비르 알 사바(Nasir al-Sabah al-Ahmad al-Jabir Al Sabah)를 앉혔다. 이 임명으로 총리직과 부총리직, 내무부 장관[자비르 무바라크 알

하마드 알 사바(Jabir Mubarak al-Hamad Al Sabah)], 외무부 장관[무함마드 알 사바 알 살림 알 사바(Muhammad al-Sabah al-Salim Al Sabah)], 국방부 장관[자비르 무바라크 알 하마드 알 사바(Jabir Mubarak al-Hamad Al Sabah)]을 포함한 정부 내 여러 분야에서 알 사바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자비르 알 아흐마드 전임 국왕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형제 사바 알 아흐마드가 부족 대표로 자주 등장했다. 의회의 역할을 확고하게 지지했던 새 통치자는 1963년부터 외교부 장관뿐 아니라 공식 협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거의 40년간 쿠웨이트 외교 정책을 지휘했다. 압둘라 빈 살림(통치 기간 1950~1965)이 현대 쿠웨이트의 진정한 아버지로 추앙받고 아들 사드 알 압둘라(2006)가 1990년 이라크 침공에서 쿠웨이트를 해방한 위인으로 존경받는다면, 사바 알 아흐마드는 쿠웨이트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국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걸프 지역 내 동맹 문제를 풀어낸 선각자임이 틀림없다.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는 뛰어난 역량의 소유자였다. 최근 걸프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위기 상황에서 훌륭하게 중재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알 자비르 가문에서 계승자와 총리를 임명해 알 살림 가문을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냈다.¹² 사바 국왕의 임명 조치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여기엔 알 살림 계에 무함마드 알 사바 알 살림을 제외하고 충분한 정부 경험과 재능이 있는 인물이 부족했던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국왕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주변에 가까운 가족을 배치했다. 정치 수준이 높은 쿠웨이트 국민은 온화한 품성의 인물을 왕국의 계승자로 의지해도 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셰이크 나와프가 특히나 지역, 국제 관계 분야를 맡아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쿠웨이트의 영원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2004년과 2006년 사이 순탄하게 권력을 승계하는 동안 알 사바 가문이 쿠웨이트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을 안타까워했다. 많은 사람이 알 사바 가문이 새로운 지도자들 뒤에서 힘을 모아 기존 체제를 강화할지 아니면 머지않아 비슷한 충격을 또 겪게 될지 염려했다.

11. Ahmad Mustafa Abu-Hakima, *The Modern History of Kuwait*, London: Luzac, 1983. See also Jill Crystal, "Abdallah al-Salim al-Sabah," in Bernard Reich, ed., *Political Leaders of the Contemporar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New York: Greenwood Press, 1990, pp. 8-14.

12. Abdullah F. Ansary, "The Succession Process in Kuwait: A Brief Overview of the Recent Crisis from a Legal Perspective," *World Law Bulletin*, Number 1, January 2006, pp. 64-74 [a publication of The Law Library of Congress].

비록 통치자가 고령인 데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적 위험이 증가했지만, 알 사바 가문은 최근 두 번의 승계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놀랄 만큼 탄력적으로 대처했다. 실제로 2006년 승계는 “결프 지역에 있는 왕정 국가 중 적어도 한군데는 민중세력과 사회, 경제 엘리트들 의지해, 이들과 공동으로 국가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권력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했다.¹³ 2006년 쿠웨이트 의회의 개입은 민주화를 향한 긍정적 움직임이었다. 이런 시도의 주요 목적은 분명 승계 관련 난국을 피하려는 거였다. 쿠웨이트는 다른 아랍 왕국보다 훨씬 먼저 입헌군주국의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런 측면으로 비추어볼 때 알 사바 가문 구성원들 간에 새롭게 연대가 형성된 점은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말, 쿠웨이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인 가문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역임한 유력 인사 자심 알 카라피(Jassim al-Kharafi)가 “정권 전복, 자금 세탁, 적국과 내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문이 퍼졌다.¹⁴ 알 카라피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그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다며 즉시 소문을 부인했고, 정부는 해당 안건 관련 보도를 통제해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¹⁵ 개별 사건이든 쿠데타 계획 음모와 관련된 여러 소문 중 하나이든 디라르 알 아수시(Dirar al-Asussi) 검찰총장은 모든 미디어에 보도 금지령을 내렸다. 민감한 정치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아파 모스크의 별관 후세이니야(Hussayniyyahs)에서만 논의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린 후, 알 사바 가문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 대책 이후 소문에 떠도는 음모 관련 기사를 내보낸 <알 와탄 Al-Watan>과 <알람 알 야움 ‘Alam Al-Yawm> 두 유력 일간지는 임시 정간됐다. 흥미롭게도 불에 기름을 부은 건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자신이었다. 알 사바는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사건이 될 수 있는 혐의

이기 때문에 깊은 우려와 슬픈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해 2014년 6월 말 스캔들을 인정했다.¹⁶ 국왕은 소셜 미디어나 다른 곳에서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모든 당사자는 사건을 검찰에 맡기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위의 사례를 통해 기존 통치 가문이 2006년 이후 다시 불거진 승계 문제를 무척 우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결정을 내렸더라도 알 카라피가 단독으로 행동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현 통치자가 쿠웨이트에서 여러 세대 동안 실시해온 교대 승계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 총리 셰이크 나세르 알 무함마드 알 사바의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한편 셰이크 나세르와 자심 알 카라피는 2014년 드러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 모두 2014년 9월 말과 10월 초에 검찰의 심문을 받았으나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었다. 외부인이 그런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아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알 자비르 가문 출신으로 전직 에너지부 장관이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흐드 알 사바(Shaykh Ahmad al-Fahd Al Sabah)가 최초 유출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2015년 5월 21일 알 카라피가 사망했다. 국왕은 쿠웨이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자 충신’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고, 알 카라피는 ‘영원히 기억될 만큼 조국에 봉사’했다고 강조해 전직 국회의장의 업적을 칭송했다.¹⁷ 계승자와 총리는 다른 문상객과 함께 알 카라피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존경받는 정치인에게 2014년 제기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¹⁸

셰이크 나세르와 아흐마드 알 파흐드는 권력을 향한 차기 주자들이다. 당연히 계승자

13. Mary Ann Tétreault, “Three Emirs and a Tale of Two Transitions,” *Middle East Report*, 10 February 2006 at <http://www.merip.org/mero/mero021006.html>.

14. Courtney Trenwith, “Kuwait Charges Former Speaker over Attempted Coup,” *Arabian Business*, 2 October 2014, at <http://www.arabianbusiness.com/kuwait-charges-former-speaker-over-attempted-coup-566813.html>.

15. “Former Kuwait Speaker Contests Conspiracy Reports,” *Gulf News*, 26 October 2014, at <http://gulfnews.com/news/gulf/kuwait/former-kuwait-speaker-contests-conspiracy-reports-1.1404081>.

16. “Kuwait Emir Urges Calm over Coup, Graft Charges,” *The Peninsula* (Qatar), 26 June 2014, at <http://thepeninsulaqatar.com/news/middle-east/289229/kuwait-emir-urges-calm-over-coup-graft-charges>.

17. Abubakar A. Ibrahim, “Former Speaker Al-Kharafi Dies, 75—Nation Mourns Loss Of Statesman, His Highness the Amir Offers Family Condolences,” *Arab Times*, 23 May 2015, at <http://www.arabtimesonline.com/former-speaker-al-kharafi-dies-75-nation-mourns-loss-of-statesman/>.

18. “Al-Kuwayt Wada‘at Jassim al-Kharafi” [Kuwait Bids Jassim al-Kharafi Adieu], *Al-Siyassah*, 23 May 2015, p. 4, at <https://docs.google.com/gview?url=http://al-seyassah.com/wp-content/uploads/2015/05/23-05-15-04.pdf>.

자리를 노릴만했기 때문에 스캔들을 공개할 동기가 있었고 알 카라피에게 지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폭로할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알 카라피 사망 이후 셰이크 나세르 알 무함마드 알 사바와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흐드 알 사바는 둘 다 승계 순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셰이크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비르 알 사바가 쿠웨이트 차기 국왕 자리에 오를 예정이어서 어떤 인물이 계승자가 될지는 (그것도 알 자비르 가문 출신이라면)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계승자가 되려는 열망이 가장 큰 사람은 현 국왕의 조카 셰이크 나세르 알 무함마드 알 사바(Shaykh Nasir al-Muhammad Al Sabah)이다. 십 년 넘게 이란에서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쿠웨이트 내 많은 시아파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후보다. 현재 걸프 전역에 팽배한 종교 분열 때문에, 향후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알 카라피 가문을 포

[표 2] 쿠웨이트 알 사바 가문 주요 인물



함한 다수의 상인 가문 역시 나세르를 선호했다. 물론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흐드도 유력한 도전자로서 쿠웨이트 내 유력한 부족들이 지지하고 있다. 셰이크 나세르와 가장 거침없이 경쟁하고 있는 국왕의 조카 셰이크 아흐마드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신문사 <알 와탄>의 소유주이며 석유, 재무 장관을 지낸 셰이크 알리 알 칼리파 알 사바(Shaykh 'Ali al-Khalifah Al Sabah)를 포함해 알 사바 가문 일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2015년 초 현재, 쿠데타 음모 계획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해 비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왕권 경쟁자들은 통치자가 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갔다. 설령 국왕이 막후에서 중재를 추진했다든가 투쟁 중인 파벌들의 화해를 위해 현 국왕이 노력한 결과에 힘입어 아흐마드 알 파흐드 알 사바가 주요 경쟁자의 위치에 올랐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¹⁹ 뺏속까지 투사였던 셰이크 사바는 1999년부터 심장 맥박 조정기를 달고 지냈다. 쿠웨이트 국민은 86세의 국왕이 타계하고 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분간 지켜 보고 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상당히 건강한 편이지만 권력의 무게는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3월 국왕은 작은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 병원에 입원했고 2014년 여름 내내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14년 10월 말 국왕은 의회에서 연례 연설을 했다. 연례 GCC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적인 아랍 걸프 왕국들이 카타르 도하에서 대사들을 철수시켰다. 이에 국왕은 걸프 전 지역을 순회하는 힘든 출장길에 올라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과 UAE 포함)와 카타르 간 영토 분쟁 협상을 지원했다. 2015년 1월 24일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국왕의 장례식에 조문하고, 리야드와 다른 걸프 국가의 수도에서 열린 여러 차례 양자 회담에 참가했다. 2015년 5월 13,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 참가해, 카타르의 셰이크 타미 빈 하마드(Shaykh Tamim bin Hamad)를 포함한 다른 GCC 대표들과 걸프 지역 안보 문제를 토의했다.

19. 이 사건과 같은 두가지 사례 참조, B. Izaak, "MPs. File to Grill PM Over Ties with Iran: Amir Makes Warring MPs Kiss and Make Up," *Kuwait Times*, 23 May 2011, pp. 1, 14; and Kristian Coates Ulrichsen, "Political Showdown in Kuwait," *Foreign Policy*, 20 June 2012, at <http://foreignpolicy.com/2012/06/20/political-showdown-in-kuwait/>.

오늘날 쿠웨이트 사람들 대부분은 집권층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알 사바 가문을 쿠웨이트의 합법적 통치세력으로 계속 지지하면서도 최근의 불안정한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특정한 정부 시책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도 불만을 거의 표출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목인이 존재하더라도 대체로 개방 사회인 쿠웨이트에서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야권 운동가와 학계, 언론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관망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몸을 부딪치는 운동경기’로 여기고,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런 태도는 쿠웨이트답지 않은 면이 있다. 많은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쿠데타 음모를 포함해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흐드 알 사바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부패 스캔들을 바라보며, 과연 그가 이상적인 후계자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일부는 셰이크 아흐마드가 카타르와 이해관계로 엮여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현재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걸프 지역 정치 환경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다지 좋은 조짐은 아니다. 불행히도 2011년 이후 카타르가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해 내린 조치는 역풍 효과를 일으켰다. 특히 쿠웨이트와 다른 지역에서 카타르 정부와 카타르 집권 가문 알 타니(Al Thani)의 평이 나빠졌다. 어떤 전문가들은 셰이크 나세르가 걸으로는 통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아랍 걸프의 이해를 대표하고 수호하기에는 이란과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쿠웨이트를 위해서는 셰이크 아흐마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현 총리 셰이크 자비르 알 무바라크(Shaykh Jabir al-Mubarak)와 국왕의 아들이자 왕실 장관 셰이크 나세르 알 사바 또는 국왕의 형제 셰이크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사바(Shaykh Mish'al al-Ahmad Al Sabah)등 왕권을 향한 다른 도전자들이 새롭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

2015년 초 현재, 쿠웨이트의 승계 동향은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자비르 알 사바 이후 누가 계승자가 될 것인지 별다른 논쟁 없이 명확해 보인다. 이번이 없다면 올해 77세로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계승자 셰이크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비르 알 사바가 왕좌에 오를 게 분명하다. 통치 가문의 구성원들이 커다란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수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쿠웨이트 전문가들은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²⁰ 다음 번 승계에서는 비록 가문과 국가를 이끌만한 확실한 후보자가 없더라도 알

살림 가문이 자신의 차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부족 정치 전체 구도로 보면, 알 자비르 출신이 다양한 계층에 걸쳐 두루 포진해 있더라도 다른 분파가 포기한다거나 장자 상속제라는 특수한 형태로 바꾸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가문 간 교대 승계 방식을 사용해야만, 쿠웨이트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내부 화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 Kristin Smith Diwan, "Kuwait's Royals Are Taking Their Feuds Public," *The Washington Post*, 8 May 2014, at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monkey-cage/wp/2014/05/08/kuwaits-royals-are-taking-their-feuds-public/>.

오만, 알 사이드 가문

[그림 3] 오만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자료: Fadi Al-Assaad © REUTERS

카부스 술탄이 즉위했을 때 오만은 현재 영토와 UAE, 바레인, 이란, 파키스탄의 일부 해안,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동아프리카 연안 지역까지 호령하던 예전의 광대한 제국이 아니었다. 불행히도 외세의 침입과 내부의 무관심 때문에 대제국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파이잘(Faysal)과 타이무르(Taymur), 사이드(Sa'id) 세 명의 지도자가 이어가며 통치한 무스카트·오만은 고립됐고, 국가 경영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영국에 (인도에 일부) 의지했다. 카부스 빈 사이드(Qabus bin Sa'id)는 오만이 스스로 내린 쇠국정책을 종식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는 지도자로서 최대한 빨리 국가를 다시 활기치게 하고 알 사이드 가문의 통치력을 회복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훌륭하게도 카부스 술탄은 산재한 국가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숙부 사이드 타리크 빈 타이무르(Sayyid Tariq bin Taymur)를 총리에 임명했다. 과거 정권의 유력 인사

들을 권력에서 물러나게 하고 영국 총영사를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또한, 노예와 죄수를 해방하고 독립적인 주간지 창간을 지원했으며 수도 무스카트와 제2 도시 살랄라에 2개의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승인했다. 술탄은 부왕에 대항해 정권 전복을 도모하려다 망명한 오만인을 특별 사면해, 새롭게 활기를 찾은 조국에 돌아와 이바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오만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오만인력육성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²¹ 즉위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카부스는 국호를 영토 분단을 상징하는 무스카트·오만에서 오만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국기를 도입했다. 또 국내외 및 걸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도파르(Dhuffar) 전쟁에 많은 힘을 쏟았다. 거기다 사실상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를 종식하고 국가의 단합을 도모하는 계획을 시행했다.

카부스가 왕위에 오른 후 4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제로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철저히 고립된 국가에서 현대화된 국가로 변모했다) 모든 것을 바꾸어 오만 국민은 위대한 변화를 성취했고, 오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국왕은 침착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승계 계획은 준비하지 않았다. 오만 국민 대다수는 국왕이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 어떤 식으로 통치할지, 왜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히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그럼에도 통치자를 신뢰할 수 있고 국왕이 자신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술탄이 계승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잠재적 후계자를 추측할 뿐이었다.²²

1996년 오만 정부는 기본법으로 왕위 계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통치 가문 중 어떤 위원을 소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해, 누가 카부스를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²³ 기본법 6조는 왕권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왕실위원회'가 3일 이내 왕위 계승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만약 왕실위원회가

21. Sultanate of Oman, *Oman: A Modern State*, Muscat: Ministry of Information, 1988, p. 7. See also J.E. Peterson, *Oman in the Twentieth Century: Political Foundations of an Emerging State*, London and New York: Croom Helm and Barnes & Noble, 1978, pp. 52-59. See also, Joseph A. Kéchichian, *Oman and the World: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Santa Monica, California: RAND, 1995, pp. 6-11.

22.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151-161.

왕위 계승자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카부스 술탄이 왕실위원회에 남긴 서한에서 지명한 인물로 선임하는 것을 국방위원회가 확인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왕실위원회가 (일반적인 가문 위원회가 아님) 3일 이내 후계자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국방위원회’는 카부스 술탄이 남긴 서한에 지명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카부스가 남긴 서한 내용을 두고 오만 전문가 사이에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파흐드 빈 마흐무드(Fahd bin Mahmud) 현 내각 부총리, 하이탐 빈 타리크(Haytham bin Tariq) 문화유산부장관, 2004년 2월까지 오만 왕립해군 사령관이자 현 국왕 고문 쉬하브 빈 타리크(Shihab bin Tariq), 국왕 대리인이자 전임 기갑연대 사령관 및 고등회담협의회 사무총장 아사드 빈 타리크(As'ad bin Tariq) 등 왕권 승계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자 중에서 왕위 계승자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 명의 빈 타리크 형제는 국왕의 타계한 숙부이자 초대 총리였던 사이드 타리크 빈 타이무르(Sayyid Tariq bin Taymur)의 아들이다. 국왕의 다른 사촌 형제 사이드 파흐드(Sayyid Fahd)는 국왕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최고 정치 기구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상 통치 업무를 맡아 능력을 발휘했다. 때로는 사이드 야탐(Sayyid Yahtham)이 사이드 파흐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비 후계자 그룹으로서 오만의 알 사이드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의 다른 통치 가문과 비교해 규모가 너무 작다. 승계 가능한 인원이 제한돼 다른 아랍 걸프 왕국들과 비교해 큰 대조를 이룬다. 게다가 기본법을 따르면 건전한 의식이 있는 성인 무슬림으로, 오만 출신 무슬림 부모 사이에서 합법적인 아들로 태어난 술탄 아흐마드 빈 사이드(Sultan Ahmad bin Sa'id)의 남자 후손만 승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더욱 줄어든다.²⁴ 구체적인 규정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닌 일부 알 사이드 출신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력한 후보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먼저, 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더라도 알 부 사이드 가문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

23. See Sultanate of Oman, *The Basic Statute of the State*, Muscat: Diwan of Royal Court, 1996, p. 3.

24.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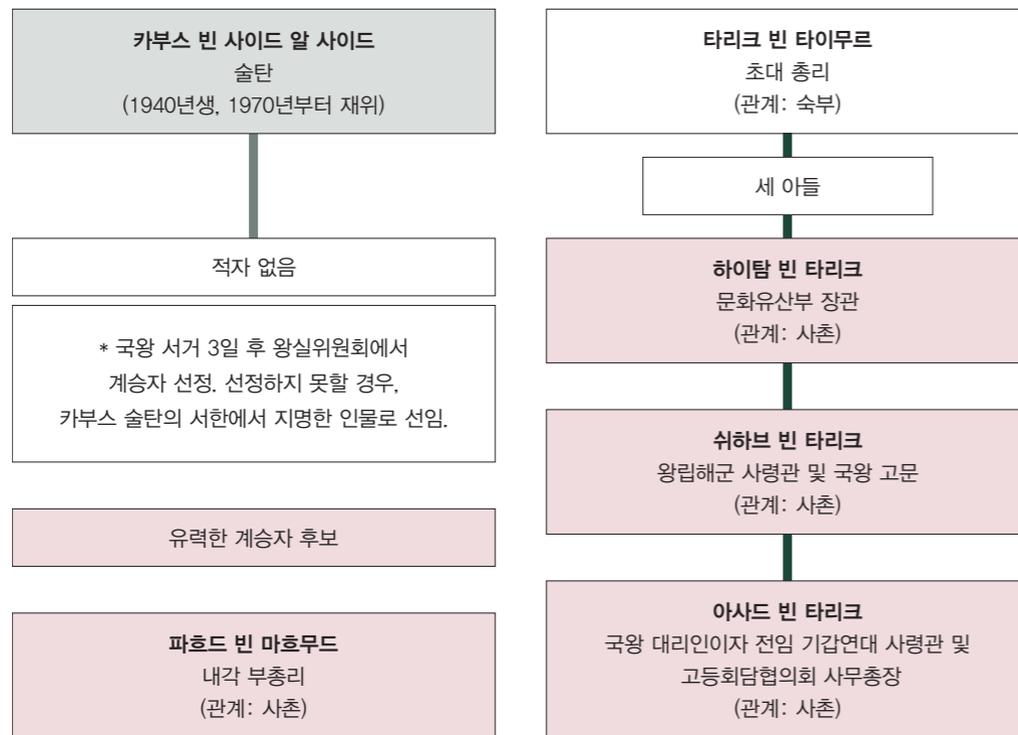
고 의사결정 과정에 비(非) 왕족을 개입시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연히 기본법은 국방위원회가 개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통치 가문 위원회가 술탄을 정하지 못했을 때만 허용된다. 카부스는 기존 알 부 사이드(Al Bu Sa'id) 위원들이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벌일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지만, 현명하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란 걸 예측했다. 눈에 띄는 분쟁이 없더라도 첨예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난국을 해결할 장치가 마련됐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술탄이 독일에서 오래 치료를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후보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사망 이전에 후계자를 지명할 수도 있으나, 다른 가능성도 역시 열려 있다. 걸프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여러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순조로운 권력 이양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왕이 마음을 확고하게 먹는다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왕이 생존하는 동안 최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문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후계자를 지명한다면, 이는 카부스의 전형적인 행보가 될 것이다.

현재 통치 가문 내에서 승계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의견 충돌은 없다. 사이드 파흐드가 원로로서 이바지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만 왕국이 카부스 술탄이 아닌 다른 통치자를 받아들이며 생기는 심리적 장벽을 넘어야 할 때, 승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드 파흐드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오만에 뛰어난 후보자가 없다고 비판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사이드 타리크 빈 타이무르의 세 아들을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타리크의 세 아들 모두 가문과 부족 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권력을 향한 경쟁자 중에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거나 필사적인 사람이 없으므로 가문 구성원 간 긴장이 위기 수준까지 악화될 위험은 없다.

카바스 술탄의 사촌들은 정통 알 부 사이드 출신이다. 사이드 아사드와 하이탐, 쉬하브, 사이드 파흐드 그리고 아직 상대적으로 어리지만 잠재적 후계자인 아사드의 아들 타이무르는 국가에 충직했다.²⁵ 이들이 권력 투쟁을 벌일 거라고 비판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특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솔한 판단이다.²⁶ 이런 추측이 맞지 않더라도 오만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누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경쟁자를 모니터했다. 예를 들어 2003년 이후 술탄의 개인 대리인이자 대부분 아랍연맹 회의에서 오만을 대표했던 사이드 아사드가 언론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인

선 작업이 반드시 사이드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004년 사이드 타이무르 빈 아사드가 살마 빈트 무스타하일 빈 아흐메드 알 마샤니(Salma bint Mustahail bin Ahmed al-Mashani)와 결혼할 때 술탄이 참석했다고 해서 사이드가 카부스 술탄의 후계자로 결정된 것도 아니었다.²⁷ 신부의 아버지는 술탄의 외삼촌이었으며 외가 쪽에서 생존하는 남자 친척 가운데 어른이었다. 이복형제인 하이탐과 쉬하브에 비해 앞서고 있는 사이드 아사드가 어떤 기준에는 잘 맞을 수 있다. 실제로 오만에서도 걸프 지역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 왕족 가문과 관련된 사안, 내부 안정성이 승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표 3] 오만 알 사이드 가문 주요 인물



뿌리 깊은 전통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독창적 혁명가답게 카부스 빈 사이드는 거의 50년 동안 계속해서 놀라운 조처를 했다. 2011년 봉기가 발생하자 집권 세력은 충격에 빠져 경악했다. 오만의 통치자는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28개나 되는 칙령을 발

표했다. 이를 통해 고루한 정권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거라는 선입견을 글자 그대로 철저히 깨버렸다. 구조적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가들은 변화가 도입되는 속도에 놀랐고 특히 실질적인 기능에 감탄했다.²⁸ 가장 최근에는 오만의 두 자문기관인 선출제 자문평의회(Majlis al-Shurah)와 임명제 국가평의회(Majlis al-Dawlah)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역사적 조처를 했다.²⁹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개혁 이후 오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다음 통치자가 유사한 긴장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1년 봉기에 오만 정부가 즉시 조치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 중요한 질문에 관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카부스 술탄은 소하르(Sohar)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시위가 발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장관과 차관, 고문, 국가평의회 의원을 교체하는 소규모 개혁을 단행했다. 국왕은 시위 물결에 맞서 지체하는 대신, 주요 보좌관을 해임하고 반대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지지했다. 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받아

25. 사이드 타이무르 빈 아사드(Sayyid Taymur bin As'ad)는 1980년생, 2015년 현재 35세로 추정된다. 참조, Ambassador Gary A. Grappo, "The Royal Guessing Game: The Next Generation," Wikileaks Document Number 07MUSCAT1126, 15 December 2017, at <https://wikileaks.org/cable/2007/12/07MUSCAT1126.html>.

26. Jennifer Hunt, "A Looming Succession Crisis in Oman and Saudi Arabia," *The Interpreter*, [Sydney, Australia: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5 February 2015, at <http://www.lowyinterpreter.org/post/2015/02/05/succession-crisis-Oman-Saudi-Arabia.aspx?COLLCC=3547361197&>. 다른 참조 Martin Dokoupil, "Succession Question Fuels Uncertainty in Oman," *Reuters*, 23 May 2012, at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6E8F806720120523>.

27. Grappo, *op. cit.*, p. 2.

28. "The Sultanate of Silence...Full Scale Crackdown on Omani Democracy Activists," *Cairo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udies*, 18 December 2012, at <http://www.cihrs.org/?p=5336&lang=en>. See also Ra'ïd Zuhair al-Jamali, "Oman, Kind of Not Quiet," *Foreign Policy*, 7 November 2011, at <http://foreignpolicy.com/2011/11/07/oman-kind-of-not-quiet/>.

29. Fahad Al Ghadani, "Oman Elections: Citizens Call for Female Quota in Majlis Al Shura for Parity," *The Times of Oman*, 2 February 2015, p. 1, at <http://www.timesofoman.com/News/46713/Article-Oman-elections-Citizens-call-for-female-quota-in-Majlis-Al-Shura-for-parity>.

들이고 자신이 행사하던 절대 권력 일부를 나누는 데 동의했다. 정치권은 엄청난 변화가 불러온 총체적인 결과를 보며 통치자의 대담한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거세게 흔들렸다. 놀랍게도 오만 정부는 많은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사안을 다루며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정직했다. 국왕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여러 사안에 대처해 2011년 2월 28일 1차로 7개의 칙령을 선포하고 대법관과 대사 임명을 단행했다. 2011년 3월 1일에는 소비자 보호국과 행정 및 재정적으로 독립된 검찰청을 신설하는 2개의 칙령을 발표했으며, 이를 후에는 국가 감사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중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월 6일 국왕은 오랫동안 재직하며 특별한 업무 성과 없이 국가 이익을 희생해가며 자신의 부를 쌓았다는 의혹을 사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국왕부와 국가안전부 장관, 왕실 사무총장을 교체했다.³⁰ 2011년 3월 7일 국왕은 가장 극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어떤 전문가는 이를 두고 “커다란 아랍 전통 칼인 칸자르가 춤을 춘 밤”이라고 표현했다. 국왕은 8개 칙령을 내려 내각을 개편하고, 신임 내각 사무총장, 국가 감사행정기구 의장, 입찰위원회 의장, 국왕부 고문, 재무부 고문, 농수산부 차관을 각각 선임했으며 놀랍게도 국가경제부를 전격 폐지했다.³¹

며칠 뒤 술탄은 오만 평의회를 구성하는 두 평의회에 입법과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유능한 군 장교를 경찰과 세관 감찰관으로 승진시켰다. 신속한 행동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술탄은 경청하고 수긍했으며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지원책과 정부에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전면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모두가 원하는 관리직인지, 아니면 기존 체제에서 오랫동안 견뎌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인지 꼼꼼하게 따졌다.

결국, 오만도 다른 아랍 세계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반도를 뒤흔든 2011년 이후 사태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걸프협력회의 지도자들은 닥쳐올 문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

30. Joseph A. Kéchichian, “A Bold Blueprint for Oman Reforms,” *Gulf News*, 17 March 2011, at <http://m.gulfnews.com/opinion/a-bold-blueprint-for-oman-reforms-1.778136>.

31. “Ministers Sacked Wholesale. HM Feeds the Entitlement Culture and New (Peaceful) Protests Confirm a Sea Change in Omani Politics,” *Muscat Confidential*, 10 March 2011, at <http://muscatconfidential.blogspot.com/2011/03/ministers-sacked-wholesale-hm-feeds.html>.

을 느끼고 오만과 바레인에 대규모 금융지원책을 약속했다. 오만과 바레인은 GCC에서 사회경제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2021년까지 연간 1억 달러의 넉넉한 지원금을 받았다.³² 양국 정부는 지원금을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 사용했다. 오만 국민과 카부스 국왕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젊은 층과 여성들을 만족하게 하려면 실제 민간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이해했다. 단기적으로 오만 정부는 분명히 사회보장제도 대상 가정 지원을 앞당기고 국가 연금 확대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만이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어떤 아랍 국가도 개혁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오만 국민도 다른 걸프 국가 국민처럼 조국을 부흥시키기 위해 기꺼이 손을 더럽히고 피땀 흘릴 준비를 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오만 지식층은 시브(Sib)에 있는 자문평의회(Majlis al-Shurah) 주차장[집회 때문에 민중의 광장(Sahat al-Sha'ab)으로 바뀌었음]에 진을 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선출 기구에 실질적 통치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진심으로 존경받는 국왕은 자신의 왕국에 새로운 기회를 불어넣고 대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난국에 대응할 방안을 내놨다. 오만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민중 봉기를 겪은 다른 아랍 정부보다 잘 이해했다. 소하르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다 불행히 폭력 사태가 벌어져 시위대 한 명이 사망했다. 카부스 국왕은 자신의 부대가 발포한 것에 격노했다. 장차 권력의 책임을 나누고 국가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오만의 젊은 층과 거리가 더 멀어질 거라 우려했다. 오만 정부의 고위급 보안 관계자는 시위대가 공공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했다. 오만 국왕은 무력 충돌이 역효과를 낳을 거라 예상해 경찰에게 즉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왕은 젊은 실업자가 대부분인 군중의 요구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무례함을 벌하는 대신 서둘러 그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국왕은 혁명가 자질을 살려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요구했다. 의회와

32. Tarek El-Tablawy, “GCC Pledges \$20 Billion in Aid for Oman, Bahrain,” *The Washington Post*, 10 March 2011, a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1/03/10/AR2011031003629.html>.

언론의 자유를 장려해 오만이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 국왕은 오만이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엘리트 계급이 항상 바르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제일 막강한 의사 결정자와 내각 책임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힘써야 할 오만 인력육성 정책 같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배반하고 있다는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엘리트 계급의 이권을 보호하기 급급하다는 인식을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찾을 만한 기회도 역시 많았다.³³

2015년 초 국왕은 오랜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뛰어난 통치 능력으로 수많은 혁신을 도입해 국가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꿨다. 그런데도 향후 계승자가 큰 난관 없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기존 체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투명해야 하고, 통치 책임을 대폭 분담할 수 있는 확실한 후계자를 지명해야 하는데, 더는 결정을 지체할 수 없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결국은 알 부 사이드 출신이 아닌 인사가 향후 왕좌에 오를 거라는 소문이 오만 내에 퍼졌다. 대표 인물은 노련한 유수프 빈 알라위(Yusuf bin 'Alawi) 외교부 장관이다. 유수프 장관은 1968년까지 도파르 해방 전선의 지도자였으며 1982년 이후 카부스 국왕의 신임을 얻었다. 카부스 국왕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2011년 비슷한 권력자들을 소리소문없이 물러나게 했지만, 알라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앞으로도 현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오만 국왕도 자신의 ‘권력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분명히 다른 아랍 걸프 지배 가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라스 알 카이마(Ras al-Khaymah)의 계승자였던 셰이크 칼리드 빈 사크르 알 카시미(Shaykh Khalid bin Saqr Al Qasimi)는 2003년 부왕에 의해 갑자기 축출되면서 의붓형제 셰이크 사우드 빈 사크르 알 카시미(Shaykh Sa'ud bin Saqr Al Qasimi)로

교체됐다. 사우디 왕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Abdallah bin 'Abdul 'Aziz)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칼리드 알 투와이즈리(Khalid al-Tuwayjri) 국왕부 장관은 2015년 1월 23일 살만 빈 압둘 아지즈(Salman bin 'Abdul 'Aziz) 국왕에 의해 갑자기 교체됐다. 오만에서는 카부스 국왕이 사이드 알리 빈 하무드 알 부사이드(Sayyid Ali bin Hamud Al Busa'idi) 국왕부 장관, 알리 빈 마지드 알 마아마리(Ali bin Majid Al Ma'amari) 국가안전부 장관, 아흐마드 마키(Ahmad Makki) 국가경제부와 상공부 장관, 마크불 빈 알리 빈 술탄(Maqbool bin 'Ali bin Sultan) 광산업 장관을 보름 안에 해임했다. 현대 오만 역사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면 누구도 영원히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지만, 카부스 빈 사이드가 만든 지배 가문의 승계 구조는 굳건할 전망이다.

33. Marc Valeri, *Simmering Unrest and Succession Challenges in Oman*,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anuary 2015 at http://carnegieendowment.org/files/omani_spring.pdf, p. 7. 다른 참조, Dhafir Awadh Al-Shanfari, *Entrepreneurship in Oman: A Snapshot of the Main Challenges* [Multi-year expert meeting on enterprise development policies and capacity-building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fourth session)], Genev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6-18 January 2012, at http://unctad.org/sections/wcmu/docs/ciimem1_4th_Dhafir%20Awadh%20Al-Shanfari_en.PDF.

카타르, 알 타니 가문

[그림 4] 카타르 왕: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자료: Amr Abdallah Dalsh © REUTERS

1990년대 초반까지 알 타니 지배 가문은 칼리파 빈 하마드(Khalifah bin Hamad)가 이끄는 바니 하마드 계파(Bani Hamad)와 아흐마드 빈 알리(Ahmad bin 'Ali)가 이끄는 바니 알리 계파(Bani 'Ali), 나세르 빈 칼리드(Nasir bin Khalid)가 이끄는 바니 칼리드 계파(Bani Khalid), 세 분파가 주축이었다. 카타르 지배 가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별도 확인하기는 힘들어도 믿을만한 정보를 따르면 전체 부족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하마드 빈 칼리파(Hamad bin Khalifah)의 후계자들이 그 중 으뜸이다. 1995년 6월 27일 부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하마드 빈 칼리파(통치 기간 1995~2013)는 카타르의 승계 구도를 젊은 세대 지도자들 중심으로 전환했다. 하마드는 적어도 1992년 이후부터 글자 그대로 실질적 지도자였고 재무부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분야를 장악했다. 하마드는 카타르 왕국이 맞은 정치적 참사에 당혹스러워하던 지배 가문 지도자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아버지를 권력에서 몰아냈다. 미래지향적 국정

의제를 제시하고, 선심 정책을 펼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국가 지도자가 당연히 미래 세대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하마드의 진실한 믿음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마드는 부왕보다 훨씬 폭넓게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계승자의 부인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알 미스네드(Shaykhah Mawzah bint Nasir Al Misned) 역시 열성적이었다. 부인은 남편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쥐기 이전부터 카타르에 일류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왔다.³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원대한 열망을 품은 하마드 빈 칼리파는 걸프 지역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개혁이 카타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하마드는 걸프 지역 내 전통적 아랍 동맹국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이란과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새로운 동맹을 맺음으로써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했다. 특히 카타르는 1995년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마드는 국민과 지배 가문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카타르 국민은 두말할 나위 없이 1995년의 쿠데타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정당하다고 믿었다. 하마드는 조국에 봉사하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했다. 대규모 국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했으며 부를 창출하는 한편 (가문도 부유해졌다) 헌법에 있는 승계 조항을 수정했다. 헌법 22조는 왕국의 통치권은 알 타니 가문 내에서 세습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마드는 '국왕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위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³⁵ 1996년 10월 하마드는 셋째 아들 자심(셰이카 모자의 장남)을 계승자로 책봉했다. 동시에 자신의 동생 압둘라를 총리에 임명해 왕가의 권력을 체계적으로 여러 명에게 분산했다. 이런 정교한 조치는 알 타니 가문에 힘을 실었다. 온화한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비르 알 타니(Hamad bin Jasim bin Jabir Al Thani) 외무장관(후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이 이끄는 알 타니 지도부는 젊은 계

34. 교육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카타르의 주장은 최근 현상이 아니다. 참조, Carla Power, "Qatar: Hillary Clinton Stand Back," *Newsweek*, 10 November 2003, pp. 30-31.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는 세 여자와 결혼해 11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얻었다.(Misha'al and Fahad, sons of Mariam; Jasim, Tamim, Jawa'an, Muhammad, Khalifah, and Mayassah, Hussah and Hind, sons and daughters of Mawzah; as well as Khalid, 'Abdallah, Thani, Qa'aqah and Lulwah, Mariam, and 'Anud, sons and daughters of Nurah) 둘째 부인 셰이카 모자(Shaykhah Mawzah)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카타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녀의 지도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승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³⁶

2003년 8월 5일 왕실위원회 회의가 열린 후 하마드 빈 칼리파는 자심 빈 하마드 알 타니(Jasim bin Hamad Al Thani)가 후계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했으며, 이 요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임을 요청했을 때 자심은 겨우 25살이었다. 또한, 국왕은 타미 빈 하마드 알 타니(Tamim bin Hamad Al Thani)가 사임한 자심을 대신한다고 발표했다. 칼리드 빈 하마드 알 타니(Khalid bin Hamad Al Thani)를 비롯한 압둘라 빈 칼리파 알 타니 총리, 무함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부총리 등 왕실 가족과 고위 관리들은 한자리에 모여 새 계승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셰이크 타미는 1980년 6월 3일 도하에서 태어났으며 국왕의 넷째 아들이다. 타미는 유년시절 영국 서번(Sherborne)에서 교육받았고, 샌드허스트(Sandhurst) 왕립 육군사관학교(Royal Military Academy)를 졸업한 후 1998년 카타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타미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조직 위원장뿐 아니라 수년간 카타르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타미는 2005년 1월 8일 무임소 장관 하마드 빈 수하임 알 타니(Hamad bin Suhaym Al Thani)의 딸 셰이카 자와라 빈트 하마드 알 타니(Shaykhah Jawharah bint Hamad Al Thani)와 결혼했다.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는 아랍 걸프국 지도자답지 않게 33살 아들에게 왕권을 넘기고 퇴위함으로써 게임의 법칙을 바꿨다. 하마드는 대국민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지도자의 책임을 질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퇴위 결정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국왕은 권력에서 오는 부담 외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퇴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했을 게 분명하다. 국왕은 짧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연설로써 나는 셰이크 타미 빈 하마드 알 타니에게 권력의 고삐를 넘긴다고 선언한다. 나는 타미

35. Herbert J. Liebesny, “Qatar,” in A. P. Blaustein and G. H. Flanz, eds., *Constitution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Dobbs Ferry, July 1973, p. 4; see also Michael Herb, *All in the Family: Absolutism, Revolution,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ern Monarch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 126.

36.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221–220, 453–458.

이 국정을 책임질 준비가 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임무를 맡고 사명을 완수할 능력을 갖췄다고 굳게 확신한다.” 셰이크 하마드는 국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통치자로서 남긴 마지막 연설에서 다음 세대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주도권’을 언급했다. ‘조국의 후예’들에게 “젊은 지도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선언해 카타르의 젊은 세대를 격려했다. 물론 아무도 타미 빈 부왕의 칭호(Al-Amir Al-Walid)를 받은 아버지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리라 예상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61세의 국왕은 자신이 설계한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이 부친을 퇴위시킨 쿠데타 18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6월 25일에 퇴위를 선언했다. 6월 26일 셰이크 타미는 국가 수반으로서 첫 대국민 연설을 하며 순조롭게 왕위를 물려받았다. 내각 개편을 포함한 예상 밖 조치가 발표됐고 막강한 총리이자 외무부 장관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비르 알 타니(Hamad bin Jassim bin Jabir Al Thani, HBJ)가 실각했다. 전직 내무부 장관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알 타니(‘Abdallah bin Nasir bin Khalifah Al Thani)가 총리 겸 내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2011년부터 외교 담당 국무 장관이었던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아티(Khalid bin Muhammad Al Attiyyah)가 외교부를 맡았다. 다른 인물들도 정부로 불려모았다.

카타르 전문가들은 후계자가 부왕이 국내와 외교 분야에서 펼쳤던 정책을 존중하리라 판단했다. 셰이크 타미는 부왕을 카타르의 진정한 정치적 설계자로 추앙하고 부왕의 길을 따르겠노라 맹세했다. 또한, 타미는 “카타르는 약속과 동맹 관계를 존중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비전이 있고 다른 누구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통해 카타르가 독립적 마인드를 고수할 거라고 확실하게 밝혔다.³⁷ 젊은 카타르 국왕은 국방 분야에서 일부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부왕이 구상하던 노선을 이어갔으나, 즉위 첫해는 다사다난했다. 타미는 대규모 무기 구매를 승인했고 병역 의무를 도입했으며, 국내 분야 관련 두 차례 연설에서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비평가들이 새 국왕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국왕은 다양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며 대부분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³⁸ 전문가들은 국왕이 확실히 대중융합주의 지도자로서 보수파 국민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예리하게 꿰뚫었

37. “Emir Vows to Follow his Father’s ‘Path,’” *Gulf Times*, 27 June 2013, at <http://www.gulf-times.com/qatar/178/details/357595/emir-vows-to-follow-his-father-s-‘path’>.

다고 분석했다. 한편에선 쓸모없는 인물을 정리하고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는 국왕의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두 가지 조치를 고려할 때, 국왕은 진보적 성향이 높지만 실제로는 현실주의자일 것이다. 특히 부왕이 퇴위하기 몇 년 전부터 셰이크 타밈이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집권 첫해에 정치권과 경제계 기득권 지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대부분 사람은 부왕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분명히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3년 중반 이후 상황은 대중이 기대한 대로 안정을 유지했다.³⁹

새로운 통치자는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언론 노출을 삼갔다. 셰이크 타밈은 아버지나 외국 방송에 자주 등장했던 전임 총리 셰이크 하마드 빈 자심과 달리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공식 행사나 회의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제 행사에도 참석했지만 공식 석상 연설은 많지 않았다. 셰이크 압둘라 빈 나세르(Shaykh Abdallah bin Nasir) 총리 역시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며, 총리의 겸손한 모습은 HBJ와 대조를 이뤘다. 2013년 6월에서 2014년 6월 사이 국왕은 자신의 정치와 경제 분야 우선 공약을 밝힌 취임 연설과 2013년 9월 UN 총회 개막 연설, 2013년 11월 자문위원회 개막 연설 등 세 차례 중요한 연설을 했다.⁴⁰ 타밈은 회의 때문에 2014년 9월 뉴욕 UN본부로 다시 방문했다. 2015년에는 2월 24일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5월 13~14일에는 다른 GCC 지도자들과 함께 강대국과 이란 간 핵무기 협정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고, 백악관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파트너십'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두 차례 워싱턴을 방문했다. 국왕은 미국 방문 동안 카타르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기 위해 즉위 이후 처음 주요 뉴스

38. Hassan Hassan, "Qatar: Blowback for Brinkmanship," in Fatima Ayub, ed, *The Gulf and Sectarianism*,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vember 2013, pp. 9-12. 다른 참조, Sultan Barakat, *Qatari Mediation: Between Ambition and Achievement*, Washington, D.C. and Doha: Brookings Institution, 2014.

39. Martin Dokoupil, "New Qatar Emir Takes Aim at Inflation, Corruption," *Reuters*, 6 November 2013, at <http://uk.reuters.com/article/2013/11/06/qatar-emir-inflation-idUKL5N0IR1AD20131106>. 다른 참조,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 Towards Qatar National Vision 2030*, Doha: Qatar 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 2013, at http://www.gsdp.gov.qa/gsdp_vision/docs/NDS_EN.pdf.

채널과 TV 인터뷰를 진행했다.⁴¹

2013년 11월 연설에서는 국내의 중요 현안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흥미롭게도 UN 총회에서 했던 두 연설은 외교 정책이 주제였다. 2014년 초, 카타르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도하에 주재하던 자국 대사들을 소환한 바람에 타밈은 거의 일 년 동안 고심했다. 이는 젊은 국왕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심각한 문제였다.

집권 후 셰이크 타밈은 카타르의 외교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계속 지원한 건 타밈의 결정이 아니었다. 선왕과 HBJ는 이슬람 단체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슬람 그룹은 이집트와 시리아, 기타 지역에서 대중적 기반을 얻고 있었다. 카타르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세력을 집결해 무함마드 무르시(Muhammad Morsi)를 이슬람주의자 국가 수반으로 선출했을 때 이집트를 지지했다. 하지만 셰이크 타밈이 취임한 지 겨우 2주 만에 이집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압둘 파타 알 시시('Abdul Fattah al-Sisi) 육군 원수가 정권을 잡았다. 이는 아라비아 반도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르시를 불신했기 때

40. 셰이크 타밈의 연설은 온라인 도하뉴스(dohanews.c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위 첫 해 세가지 연설 관련 주소 참조, "Qatar's New Emir Pledges to Stay on Course Set by His Father," 26 June 2013, at <http://dohanews.co/qatars-new-emir-pledges-to-stay-on-course-set-by-his/>; Shabina S. Khatri, "Emir Calls for End to Suffering of Palestinians, Syrians in UN Speech," 24 September 2013, at <http://dohanews.co/emir-calls-for-end-to-suffering-of-palestinians/> and Shabina S. Khatri, "Emir Focuses on 'Building the Homeland' in First Shura Council Address," 5 November 2013, at <http://dohanews.co/building-the-homeland-focus-of-emirs-first-address-to-shura-council/>.

41. Shabina S. Khatri, "Qatar Emir to Make First Official White House Visit on Tuesday," *Gulf Times*, 21 February 2015, p. 1, at <http://dohanews.co/qatar-emir-make-first-official-white-house-visit-tuesday/>. 다른 참조, "Emir Describes Camp David Summit as Fruitful," *Gulf Times*, 15 May 2015, p. 1, at <http://www.gulf-times.com/qatar/178/details/439279/emir-describes-camp-david-summit-as-fruitful>; and Peter Kovessy, "In TV interview, Qatar Emir Says Poor Labor Conditions 'Not Acceptable'," *Doha News*, 26 September 2014, at <http://dohanews.co/tv-interview-qatar-emir-says-poor-labor-conditions-acceptable/>.

문에, 중대한 변수가 없다면 상황이 카타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걸 의미했다.⁴² 무슬림 형제단과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에 있는 연계 단체의 영향력이 차츰 줄어들었다. (게다가 GCC 동맹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비난이 거세졌다.) 카타르는 자신들이 흔히 알려진 것처럼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적이 절대 없으며 각국의 국민과 대표를 지지했을 뿐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카타르는 이집트 새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집트의 반 카타르 발언이 최고조에 이르러 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어두웠다. 더구나 <알자지라 Al Jazeera> 기자 투옥과 이집트 전역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시위 진압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2014년 1월 이집트는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뒤이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카타르 정부는 이는 결과적으로 평화적 시위자를 사살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3년 3월 8일 이집트 새 대통령 취임식에 셰이크 타미이 초청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겠지만, 이집트와 카타르 간 상처가 정말 깊은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카타르는 이집트에 축하 전문을 보냈다. 해석이야 어떻든 카타르 국왕이 아랍 국가 최대 적으로 보이는 게 카타르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⁴³

셰이크 타미이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는지, 부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바레인에 특별한 태도를 취했다. 2014년 초 이들 국가는 카타르가 대체로 이슬람 세력을 계속 지지하는 데 분노해, 카타르와 심각한 외교 실전을 벌였다. 실제로 세 GCC 국가는 카타르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GCC 안보협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2014년 3월 5일 도하에 주재하던 자국 대사를

42. Lina Khatib, *Qatar and the Recalibration of Power in the Gulf*, Washington and Beiru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4. 다른 참조, Guido Steinberg, "The Gulf States and the Muslim Brotherhood," Washington, DC: The Project on Middle East Political Science (POMEPS) at the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1 March, 2014; and Ian Black, "Qataris Give Ground in Gulf Spat," *The Guardian*, 19 September 2014, at <http://www.theguardian.com/world/on-the-middle-east/2014/sep/19/qatar-islamists-uae-saudi-egypt>.

43. Azzurra Meringolo, "From Morsi to Al-Sisi: Foreign Policy at the Service of Domestic Policy," *Insight Egypt*, Number 8, March 2015, at http://www.iai.it/sites/default/files/inegypt_0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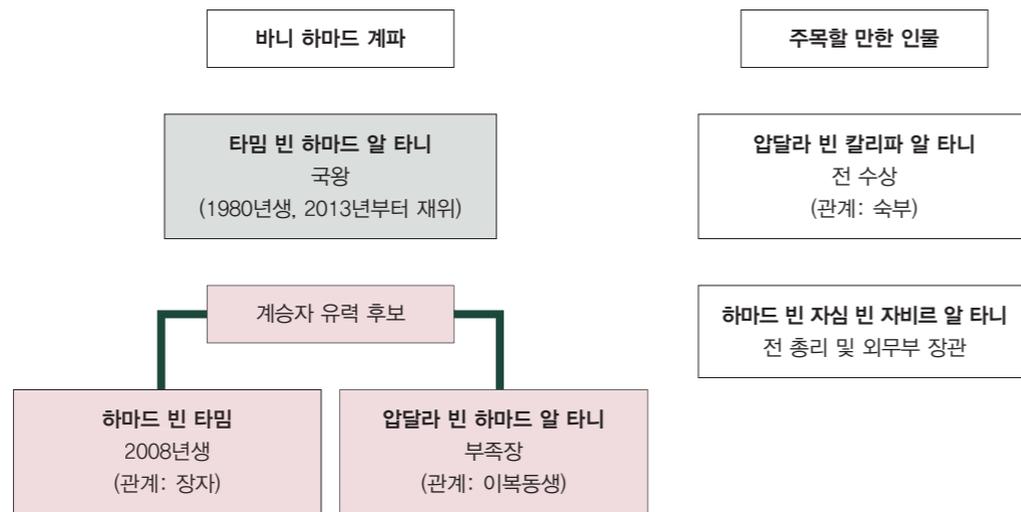
소환했다. 이에 충격받은 카타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다른 나라가 자신의 정책에 간섭해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러나 맞대응으로 상대 GCC 동맹국 수도에 주재하는 카타르 대사를 소환하지는 않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랍의 전통에 따라 셰이크 타미이 쿠웨이트에서 열린 중재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2014년 말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GCC 연례 정상회담 이전에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점이다. 앞서 말한 중재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UAE가 가자 지역에서 일어난 충돌에 관련됐다는 의혹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진 않았다. 결국, 알자지라를 포함해 카타르의 여러 언론사에서 무슬림 형제단 지도층이 퍼뜨린 것으로 예상되는 소문을 보도했다. UAE가 공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수적인 걸프 국왕들은 사이가 더 멀어졌다.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해 벌어진 일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바레인 정부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3개국 지도자는 1960년대 이집트에서 추방된 이후 카타르에 머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무슬림 형제단 성직자 유수프 알 카라다위(Yusuf Al-Qaradawi)의 활동에 분노했다. 셰이크 타미이 권좌에 오른 후, 카라다위에게 카타르를 떠나라 요청할 거란 소문이 돌았다. 카라다위는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 아랍 걸프 국왕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카라다위는 특히 아부다비의 지도자들을 지목해 반이슬람이라고 혹독하게 비난했다. 카라다위의 행동이 큰 의미는 없었지만 아부다비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부다비의 지배가문, 특히 왕위 계승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uhammad bin Zayid Al Nahyan)은 형제단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2011년부터 UAE 내 지역 연계 조직 알 이슬라(Al-Islah) 단속을 진두지휘했다.⁴⁴

흥미롭게도 카타르의 국왕과 총리는 선왕이 선호하던 스타일과 다르게 연설을 많이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외무부 장관을 겸임했던 HBJ가 왜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였는지 알 수 있다.) 반면 2011년부터 외무부 장관직을 맡은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아티야(Khalid bin Muhammad Al'Attiyah)가 국제무대에서 카

44. "Abu Dhabi's Network of Political Sufism and its Implications on the Security of Saudi Arabia," *Islam Affairs*, 2015, at <https://www.scribd.com/doc/260515315/Abu-Dhabi-s-Network-Of-Political-Sufism-And-Its-Implications-On-The-Security-Of-Saudi-Arabia>. 다른 참조, Jonathan Benthall, "Building a Reform Movement: Could Muslims Emulate Nineteenth Century Judaism?," *The GloCal*, 30 March 2015, at <http://www.glocal.org.hk/archives/41778>.

타르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 하지만 셰이크 타밈이 해외 출장 일정을 왕성하게 소화하며 도하를 방문하는 해외 권력자들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타밈이 외교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카타르는 외교와 관련된 원대한 계획을 새로 발표하지는 않았어도 카르툼과 탈레반, 하마스 등 다른 단체가 꺼리는 외국 정부나 독립 단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타르는 위기가 발생하면 매년 지원 요청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에 테러 집단을 후원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현 국왕은 카타르의 해외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전에 국내 문제를 정리하길 원했다. 그런데도 카타르가 2014년 가자 지구 종전 협상에 참여한 사례는 부왕 때 구축한 카타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젊은 국왕은 이런 지위를 계속 유지하길 원했다.

[표 4] 카타르 알 타니 가문 주요 인물



당연히 새 국왕은 여유 있게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장기 전략을 세우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리라 예상됐다. 그런 면에서 셰이크 타밈은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서둘러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됐다. 2015년 현재 국왕은 34세이므로 70대 국왕이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여전히 회복 중이다.) 아직도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오만과 비교하면 별문제 없다. 그런데도 타밈이 갑자기 사망하면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2014년 4월 국왕은 칙령을 내려 자신이 해외 출

장을 갈 때마다 형제 셰이크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타니(Shaykh'Abdallah bin Hamad Al Thani)가 국왕의 책무를 대행하도록 조치했다. 타밈이 자신의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지는 알 수 없다.⁴⁵ 국왕의 이복형제 셰이크 압둘라는 부왕의 임명을 받아 2011년 말부터 국왕부(Diwan)를 맡았다. 국왕의 측근이란 증거로 압둘라는 타밈이 권좌에 오르자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부사장에 임명됐고, 아흐마드 알 사이드(Ahmad al-Sayyid)가 회장 (이전에 HBJ가 차지한 자리) 자리에 올랐다.

2015년 현재 셰이크 타밈의 부인은 두 명이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정보를 따르면 이후 두 차례 더 결혼했다고 한다. 국왕의 유명한 어머니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알 미스네드(Shaykhah Mawzah bint Nasir Al Misned)와 달리 타밈의 배우자들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왕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국왕은 적어도 7명의 자식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첫째 부인 셰이카 자와하르 빈트 하마드 빈 수하임 알 타니(Shaykhah Jawahar bint Hamad bin Suhaym Al Thani) 사이에 아들 둘과 딸 둘, 둘째 부인 아누드 빈트 마나흐 알 하즈리(Anud bint Manah Al Hajri) 사이에 적어도 아들 하나를 포함해 세 명의 자녀를 뒀다. 국왕의 장남이자 후계자가 될 하마드 빈 타밈(Hamad bin Tamim)은 2008년에 태어났다.

45. Peter Kovessy, "Qatar's Emir Names Second-in-Command, and a New Head of the Diwan," *Doha News*, 12 November 2014, at <http://dohanews.co/qatars-emir-names-second-command-new-head-diwan/>.

사우디아라비아, 알 사우드 가문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자료: Gary Cameron © REUTERS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약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한 G20 경제 그룹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가졌다. 국토는 동쪽으로 페르시아/아라비아만, 서쪽으로 홍해, 중요한 두 수역 사이에 걸쳐 있다.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만과 바브 알 만데브 해협 때문에 아직도 대양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20세기 후반부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역의 맹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2015년 초 사우디 정부는 앞날이 불투명한 예멘에서 후티(Houthi) 반군과 싸우기 위해 10개국 동맹을 주도했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외교, 국방,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구성한 조직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알 사우드 통치 가문은 실질적으로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통치자가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는 전통 군주제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통치자는 메카와 마디나의 성스러운 사원을 수호하며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정통성을 지녔다. 1932년 압둘 아지즈 빈 압둘 라흐만('Abdul 'Aziz bin 'Abdul Rahman)이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을 결집했을 때부터 알 사우드 가문은 실력과 끈기로 왕국을 통치했다. 알 사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단순한 부족 정치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성공적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독특한 구조를 개발해 자신의 통치에 정통성을 확보했다. 압둘 아지즈와 가문 지도부는 권력 기반 유지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위협을 물리쳐야 하는지도 알았다. 자신들이 타고난 능력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알 사우드는 과거 몇 세기 동안 대부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운영됐다. 요컨대 20세기 전반부 알 사우드는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가문을 보호해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정치 전략을 일관성 있게 펼치지 못했다.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압둘 아지즈와 후계자들은 독특한 정치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알 사우드의 통치를 합법화하는 명확한 사상 기반을 확립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의 가치를 엄격히 따르는 가문의 도움을 받아 권력 의지를 키웠고, 석유 자본을 이용해 사막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켰다.⁴⁶

권력 의지 강화와 더불어 엘리트 그룹이 지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합법화하는 이데올로기 정당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주장은 정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전제 조건을 만들었다. 이념적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적 목표를 만들었다.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목표는 정치와 군사, 경제적 성격을 지녔다. 예를 들어 교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 정치, 경제적 전략을 세웠다. 결국, 전략의 목적은 통치 엘리트에 향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통치 엘리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닌 능력과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비교해볼 때 실현 가능하고 설득력 있었다. 거의 백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엘리트 집단은 크게 보면 국내 권력과 영향력 확보를

46.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문제에 대한 몇가지 기초 자료 참조, *On Saudi Arabia: Its People, Past, Religion, Fault Lines—and Future*, New York: Knopf, 2012; Robert Lacey, *Inside the Kingdom: Kings, Clerics, Modernists, Terrorists, and the Struggle for Saudi Arabia* New York: Viking, 2009; and Robert Vitalis, *America's Kingdom: Mythmaking on the Saudi Oil Frontier*,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225-277.

목표로, 세부적으로는 정책 수립을 놓고 벌어진 총체적 경쟁 속에서 움직였다. 종합해 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엘리트 그룹이 경쟁하고 정책 수립 절차를 거치며 이뤄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알 사우드가 지배 엘리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⁴⁷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Abdallah bin 'Abdul 'Aziz Al Sa'ud)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의 11번째 아들이다. 당시 82세였던 국왕은 2005년 8월 1일 자신의 형제 파흐드(Fahd)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라 92세가 되던 2015년 1월 23일 병으로 타계할 때까지 왕위에 머물렀다. 계승자이자 차기 국왕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Salman bin 'Abdul 'Aziz Al Sa'ud)는 순조롭게 권력을 이어받아 왕좌에 올랐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새 국왕은 선왕의 정책을 고수하고 자기 형제가 펼쳤던 수많은 정책을 파기할 계획이 없어 보였다.⁴⁸ 살만 국왕은 신속하게 자기만의 권력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왕위에 오르는 절차는 오랜 계획 과정을 거치며 신중한 조율을 통해 진행됐다. 살만 국왕이 선왕과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리라 예측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았고, 개성이 뚜렷해 당연히 자신만의 철학을 추구할 거라 예상했다. 예를 들어 승계위원회(Allegiance Commission)를 폐지한다거나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성과를 퇴보시키지는 않을 거라 예상했다. 여러 위원회를 두 개의 큰 조직으로 통합한 조치 때문에 일부에선 새 국왕이 국가를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상당수는 국왕이 위협하게도 “와하비파 지배층을 가까이하고,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려 한다.”라며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⁴⁹

한 사우디아라비아 전문가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견해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이

47. Joseph A. Kéchichian, *Succession in Saudi Arabia*, New York: Palgrave, 2001, pp. 1-21. 다른 참조, David Holden and Richard Johns, *The House of Saud: The Rise and Rule of the Most Powerful Dynasty in the Arab Worl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1; and Anthony Cave Brown, *Oil, God, and Gold: The Story of Aramco and the Saudi Kings*,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99, pp. 204-214.

48. Joseph A. Kéchichian, *Legal and Political Reforms in Saudi Arabia*, London: Routledge, 2013.

49. Caryle Murphy, “In With the Old in the New Saudi Arabia,” *Foreign Policy*, 26 February 2015, at <http://foreignpolicy.com/2015/02/25/in-with-the-old-in-the-new-saudi-arabia-king-salman>.

참여한 약 24차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참가자들은 왕실 정치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 신분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다. 설문 결과에서 살만 국왕이 1982년부터 2005년까지 통치했던 자신의 형이자 멘토 파흐드 빈 압둘 아지즈(Fahd bin Abdul aziz)의 통치 스타일을 부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반복해 나타났다.⁵⁰ 파흐드 전 국왕은 독재 스타일로 뚜렷하게 다른 개성을 드러냈다. 그는 종교와 종교 경찰을 이용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을 빈틈없이 통제했다. 파흐드와 살만은 친형제 간으로 하사 빈트 아흐메드 알 수다이리(Hassah bint Ahmed Al Sudayri)의 아들이며 소위 말하는 수다이리 7형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행보가 그렇게 쉽게 드러날 거라고 결론 내린 예측은 너무 경솔했다.⁵¹ 가족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라 해도 정책 변화는 갓 출범한 왕실 체제 내에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서히 일어났다. 살만 국왕이 즉위하자마자 내린 임명 조치 덕분에 가문 내 수다이리 계파가 다시 강력하게 부상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권력의 핵이 됐다. 하지만 수다이리 계파와 알 사우드 가문 내 다른 계파 간 권력 다툼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최근 승계 이후 그리 빨리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분명히 막후에서 주요 직위의 승진과 교체가 진행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다이리 선두 주자들은 모두 권력을 잡고 싶은 열망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미 벌어진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일을 주체 넘게 확정적으로 판단해, 별 상관도 없고 큰 의미도 없는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가 수다이리 형제인 반다르 빈 술탄 빈 압둘 아지즈(Bandar bin Sultan bin 'Abdul 'Aziz) 왕자가 비록 건강상의 이유이긴 해도 공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직 내무부 장관이자 국왕의 친형제 아흐메드 빈 압둘 아지즈(Ahmed bin 'Abdul 'Aziz)는 몇 년 전 압둘라 왕에게 인정사정없이 해임된 이후 아무 직위도 받지 못했다. ‘수다이리 가계가 귀환’했다는 때 이른 주장은 잠시 뉴스의 눈길을 끌었으나 수다이리 계파 내 중요 인물 두 명이 관련된 사건 때문에 흐지부지됐다.⁵²

드디어 2015년 1월 23일 무크린 빈 압둘 아지즈(Muqrin bin 'Abdul 'Aziz) 왕자가 계승자에 책봉됐다. 무크린 왕자는 전직 사우디아라비아 정보부 수장이자 초대 국왕의 막

50.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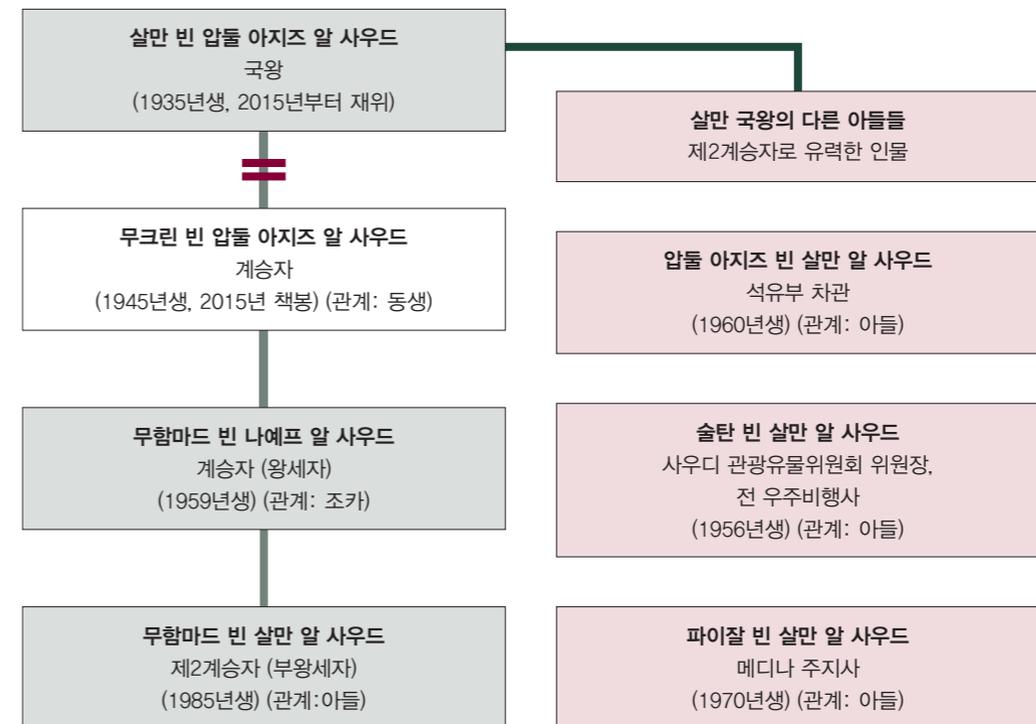
51. 압둘라 아지즈 초대국왕과 두 번 결혼한 하사 빈트 아흐메드 알 수다이리 왕비는 아들 입골명(파흐드, 술탄, 압둘 라흐만, 나예프, 투르키, 살만, 아흐메드)을 낳았다. 자세한 참조, Kéchichian, *Succession in Saudi Arabia*, *op. cit.*, pp. 6-8.

내아들로 2014년 3월 27일 제2계승자에 책봉됐고, 이복형제 압둘라 국왕과 제1계승자 살만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다. 무크린은 이미 2013년 비공식적 관례대로 제2계승자에게 배정된 제2부총리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계승자 임명은 예정된 절차였다. 이 결정은 전혀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으나, 무지한 호사가들은 무크린의 어머니가 예멘 출신이기 때문에 고인이 된 선왕과 새 국왕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소문을 퍼뜨렸다.⁵³ 압둘라 국왕은 2006년 승계위원회법(Allegiance Commission Law)을 선포함으로써 승계 절차를 공표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로 권력을 넘기는 과정이 어떻게 관리될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인 자신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무크린 왕자를 계승자로 임명하자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적 승계 과정을 걱정하지 않았다. 중동 전역에서 충돌과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문의 실력자들이 사우디 내부의 안정성을 도모했으므로 승계 절차는 탄탄해 보였다.

그러나 살만 국왕은 갑자기 내무부 장관 무함마드 빈 나예프(Muhammad bin Nayif)를 제2계승자로 임명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제2계승자는 알 사우드 가문에서 신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임명 결정은 그야말로 지배층을 뒤흔들었다. 무함마드는 그동안 테러방지에 기울인 노력 덕분에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잘 알려진 후보자였지만 임명 조치는 장관 자신도 예상치 못했다. 1959년생으로 오랫동안 왕위 계승자 후보였던 나이프 제2계승자는 부모가 [부친 나예프 빈 압둘 아지즈(Nayif bin 'Abdul 'Aziz)는 왕위 계승자였으며 모친은 자화라 빈트 압둘 아지즈(Jawharah bint 'Abdul 'Aziz)] 모두 정통 알 사우드 가문 출신으로 강력한 혈통을 지녔다. 무함마드는 경제계에서 처음 이

름을 알렸으며, 199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독면 수입 관련 대형 계약 수주 건을 보도하면서 서구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90년 무렵까지 민간 업계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5월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치안을 담당했다. 무함마드는 2003년 급진 과격주의 기획자 알리 압둘 라흐만 알 감디('Ali 'Abdul Rahman al-Ghamdi)가 그에게 자수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무함마드는 2004년 6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리스트 갱생 프로그램을 관장한 성과로 장관직에 임명됐다. 2009년 바로 몇 미터 옆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나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피했다. 2012년 11월 무함마드 빈 나예프는 자기 세대 중에서 가장 고위직인 내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2015년 1월 23일에는 살만 국왕이 그를 제2계승자로 책봉했다. 무함마드 왕자는 전직 왕위 계승자 술탄 빈 아브델 아지즈(Sultan bin 'Abdel 'Aziz)의 딸 리마 빈트 술탄(Rimah Bint Sultan)과 결혼해 여러 명의 딸을 뒀다.⁵⁴

[표 5] 사우디아라비아 알 사우드 가문 주요 인물



52. Joshua Teitelbaum, "Saudi Succession: The Sudayris Return," *Begin-Sadat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BESA Center Perspectives Paper No. 282, Israel, 26 January 2015, at <http://besacenter.org/perspectives-papers/saudi-succession-sudayris-return/>; Kenneth M. Pollack, "Welcome to Sudayri Arabia," *Brookings: Middle Past Politics and Policy* [MARKAZ blog], 30 April 30, 2015, at <http://www.brookings.edu/blogs/markaz/posts/2015/04/30-saudia-arabia-salman-yemen-pollack>; and Bilal Y. Saab, "A New Saudi Foreign Policy for a New Era," *The Atlantic Council*, 13 May 2015, at <http://www.atlanticcouncil.org/blogs/menasource/a-new-saudi-foreign-policy-for-a-new-era>.

53. As'ad Abu Khalil, "Saudi Political Dilemmas," *Al-Akhbar*, 27 January 2015, at <http://english.al-akhbar.com/node/23417>.

알 사우드 가문 대부분은 1744년 사우드 가문과 알 알 셰이크(Al al-Shaykh) 사이에 체결된 연합이 성직자 그룹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국왕이 극 보수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밀접하다는 세간의 추측 역시 억측에 불과했다. 압둘라 국왕은 국가에 필요한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방해한 성직자들을 강등하거나 해임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살만 계승자, 알 사우드 가문 대부분이 월권행위라고 간주하는 종교 경찰의 활동을 억제했다. 당연히 고인이 된 선왕도 교육이나 사법제도, 여성 참정권 등의 분야를 독점하던 성직자 계층을 기꺼이 생각했을 리 없다. 또 살만 국왕이 성직자의 이익을 가문의 안전보다 조금이나마 우선순위에 둘 거라 상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05년 이후 도입된 변화가 되돌려지거나 되돌려질 수 있다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일부는 파흐드 국왕이 채택한 모델이 종교와 현대화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러운 발전 양식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급해야 확립된다. 그렇다고 한쪽에서 세계화를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혹시 고유의 전통이 무시될까 봐 우려하는 의견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현대화가 가져온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급격한 변화를 반기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사우디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주류사회에서는 파흐드 국왕 시절에 사회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현명한 계획이 부족했으며,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물가는 너무 높았다고 두고두고 애석해 했다. 1979년 주하이만 알 우타이비(Juhayman al-'Utaybi)와 추종자들이 메카의 성스러운 사원을 점거했다. 그 여파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여 성직자들이 엄격한 율법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또한, 파이잘 빈 압둘 아지즈(Faysal bin 'Abdul 'Aziz) 국왕이 1964년 집권한 이후 도입했던 중요 사회 개혁 정책으로부터 멀어졌다.⁵⁴ 21세기 접어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대다수가 진정한 개혁을 희망했다. 특히 80대 국왕이 의미 있는 교육 개혁을 펼치고, 국내 언론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TV 방송에서 여성 출연자들이 히잡 대신 화려한 아바야를 걸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허용한 조치도 포함) 교육계와 직

54. Ismaeel Naar, "Who Are Saudi Arabia's New Crown Princes?: Reconfirmation of Muqrin bin Abdulaziz as Heir and Naming of First Grandson as Deputy Attests Shift in the Royal Court," *Al Jazeera*, 24 January 2015, at <http://www.aljazeera.com/news/2015/01/saudis-crown-princes-150124083039820.html>.

장에서 여성의 진출을 장려하자, 비평가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압둘라 국왕의 통치에 만족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히 여성들에게 고무적인 시대였다. 살만 국왕이 반여성적 정책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형제가 펼친 개혁을 파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간단히 말해, 살만이 압둘라만큼 여성 관련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살만 국왕은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타계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 시절에 있던 11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2개의 강력한 국정 담당 기구로 신속히 통합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새 국왕은 반다르 빈 술탄(Bandar bin Sultan) 왕자가 이끌던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외에도 인사위원회, 교육정책 고등위원회, 행정조직 고등위원회, 압둘 아지즈 시티 과학기술 고등위원회, 교육 최고위원회, 장애인 최고위원회, 압둘라 시티 원자력 재생에너지 최고위원회, 이슬람 최고위원회, 석유광물 최고위원회, 최고 경제위원회 등 10개의 다른 위원회를 폐지했다. 제2계승자 무함마드 빈 나예프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정치·안보 위원회와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개발 위원회라는 2개의 거대 위원회가 11개 조직을 대체했다. 두 왕자는 국정을 재정비하고 효율적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투명성을 높이려는 임무를 받았다. 광범위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중간에 긴급하게 판단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초기 일 년 동안 지켜본 다음 둘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⁵⁵

살만 국왕은 왕위에 오른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크린 빈 압둘 아지즈 왕자의 계승자 지위를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에게 넘기고, 자기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를 제2 계승자로 지명해 또 한 번 획기적 변화를 일으켰다.⁵⁶ 국왕이 총애하는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은 국방부 장관과 치안을 제외한 모든 실무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직위를 맡았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계승자가 이끄는 정치·안보

55. 추가 세부 사항 참조, Joseph A. Kéchichian, *Faysal: A King for All Seasons*,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8 and Joseph A. Kéchichian, *Iffat Al Thunayan: An Arabian Queen*,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15, especially, pp. 198-229.

56. 비록 시간이 촉박한 사안일지라도 두 거대 위원회의 업적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표 6] 살만 국왕의 조직개혁



위원회에도 속해 있어 왕족 중에 유일하게 두 위원회 다 소속돼 있다.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지 알 수 없지만 한 명에게 이렇게 권력을 집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게 당연하다. 왕자는 왕실부 수장의 자리를 살만 국왕의 오랜 측근이며 왕실부 차석 하마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수와이림(Hamad bin ‘Abdul ‘Aziz al-Suwaylim)에게 넘겨 주었으나, 앞서 언급한 직위 외에도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의 10인 최고 위원회 회장직을 맡아 성장 가도에 새로운 직함을 더했다.⁵⁸

국왕은 자기 아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겨 젊은 왕자가 실무를 익히고 통치 가문의 신임을 얻는 한편, 사우디 왕국의 승계 구조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으로 장자 상속제 도입 방안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⁵⁹ 최근의 임명에 대한 결정을 분석해보면 살만 국왕이 충격과 공포 전략을 무척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34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2008년 킹 사우드대학교(King Sa‘ud University)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후 부왕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이지만, 수많은 임무를 처리해 낼 능력이 필요하며 계승자라는 상징적 의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젊은 왕자가 유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할 만한 역량이 있을지 또 잘해낼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게다가 2011년 타계한 계모 술타나 알 수다이리(Sultanah al-Sudayri) 공주의 세 아들, 석유부 차관 압둘 아지즈, 사우디 관광유물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우주비행사 술탄, 메디나(Madinah) 주지사 파이잘을 포함한 여러 이복형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결국,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자기 앞에 놓인 엄청난 임무를 처리하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지지세력을 끌어모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멘에서 시행된 단호한 폭풍 작전(Operation Decisive Storm) 여파로 임기 초반에 국방부 장관 소임 외에 여러 가지 임무를 추가로 맡은 것이 특징이다.

물론 국왕으로서 왕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책임 외에, 새로운 세대가 들고 일어나자 살만 국왕 자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변화를 앞당기려 결심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국가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려는 국왕의 시도를 두고 ‘늙고 병든 국왕’이란 딱지를 붙여 “국왕과는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당혹스러워했다.⁶⁰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며 수군대던 사람들은 알 사우드 가문의 리더

57. “Palace Intrigues,” *The Economist* 415:8936, 2 May 2015, p. 47. 다른 참조, “The Challenged Kingdom,” *The Economist*, 415:8939, 23 May 2015, pp. 17-19; and “Saudi Arabia’s Monarchy: Nothing Succeeds like Succession,” *The Economist* 29 April 2015, at <http://www.economist.com/node/21650011/>.

58. “Saudi Arabia Shakes Up State Oil Firm Aramco,” *BBC Online*, 1 May 2015, at <http://www.bbc.com/news/business-32552594>.

59. Joseph A. Kéchichian, “Saudi Arabia’s Succession Shakeup and the Rise of Mohammed bin Salman,” Washington, D.C.: Middle East Institute, 20 May 2015, at <http://www.mei.edu/content/article/saudi-arabia’s-succession-shakeup-and-rise-mohammed-bin-salman>.

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다. 살만 국왕이 개혁하며 변화의 속도를 높였을지 모르지만 알 사우드 가문은 요란하게 행동하지 않고 차분히 움직였다.⁶¹ 알 사우드 가문이 과거에 중요한 변화를 시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 국왕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자문했다. 이는 의견 일치로 통한 탁월한 의사 결정이었다. 혹자는 살만 국왕이 타계한 형제의 시신이 리야드 알 우드 묘지(Riyadh's al-'Ud cemetery)에 안장되기도 전에 고위 관리들을 교체하고 막내아들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살만 국왕은 압둘라 국왕이 서거한 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일으켜 사우디아라비아 국민과 다른 나라에 분명히 충격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반대로 비평가들이 앞날을 아무리 비관적이고 암울하게 내다보더라도 살만은 왕국을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젊은 세대 중에서 내무부 장관이자 대 테러 기구의 수장 무함마드 빈 나예프 제2계승자를 왕위 계승자로 책봉한 결정은 분명 충격이었다.⁶²

선왕과 달리 살만 빈 압둘 아지즈는 엄청난 위기가 걸프 지역과 전 세계에 몰아치는 가운데 왕위에 올랐다. 아랍과 무슬림 세계는 오랫동안 변화를 겪을 게 분명했다.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많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며 왕국을 번성시킬 임무를 맡았다. 목표는 변함없이 확고했다. 이를 위해 국왕은 국정 통상 업무를 경제발전위원회와 정치안보위원회에 맡겨 건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확실하게 주문했다. 그 결과 국정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됐다. 물론 국왕은 뚜렷한 이념에 근거해 국정 목표를 세우고, 초대 국왕과 1953년부터 2015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한 선왕을 본받으려 했지만, 획기적 변화를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장기간 고수해온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살만은 2015년 1월 23일 왕위에 안착해 산적한 안건을 넘겨받았다. 대학에 다니는 몇 년 동안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안목을 키웠던 살만은 최종 중재자(모든 국왕이 정치

60. Ian Black and Dan Roberts, "King Salman of Saudi Arabia Pulls Out of US Talks on Iran," *The Guardian*, 11 May 2015, at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may/11/king-salman-saudi-arabia-pulls-out-us-talks-iran>.

61. Simon Henderson, "Saudi Arabia's Big Gamble," *Foreign Policy*, 26 March 2015, at <http://foreignpolicy.com/2015/03/26/saudi-arabias-big-gamble%E2%80%8B-yemen-airstrikes/>.

권 전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으므로)로서 중책을 맡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나 알듯이 이라크에서 예멘에 걸쳐 아라비아 반도를 철저히 압박하려는 이란의 팽창주의 정책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서는 바레인 사태 개입과 역내 시아파 재건 선동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이런 긴박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우디 정부는 레바논을 위협하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친이란 헤즈볼라 민병대와 관련된 시리아의 복잡한 문제와 부패, 무정부 상태의 상징인 이라크의 불안한 상황과도 직면했다.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코란을 헌법으로 삼아 최고의 무슬림 국가임을 자처하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소위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라고 불리는 داع시(Da'ish)와 씨름하고 있었다. داع시와 무슬림 형제단 같은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는 여러 무슬림 국가를 포함해 이집트와 리비아 같은 경쟁국의 의중을 살폈다. 이들은 성스러운 두 사원의 수호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 뻔뻔하게도 예멘처럼 오래 전 영토를 다시 찾겠다는 부류의 국가들이 제일 대담했다. 심지어 지도층이 전부 이슬람으로 구성된 세속주의 국가 터키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서구화 모델을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슬림 세계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표면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62. 2015년 7월 13일 살만 국왕은 왕위에 오른 후 네 번째 개각을 단행해, 하마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수와이림(Hamad bin 'Abdul 'Aziz al-Suwaylim) 대신 칼리드 빈 압둘 라흐만 알 이사(Khalid bin 'Abdul Rahman al-'Issa) 국무장관을 왕실 수석으로 임명했다. 2015년 4월 강력한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에 이어 수석을 맡았던 수와이림은 2인자로 자리잡는 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교체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내부 개혁의 본보기로 그를 선택할 걸 두고 수와이림이 위축될 거라 믿었다. 이외 두 개의 별도 칙령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장관으로 부동산 전문가 마지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후가일(Majid bin 'Abdallah bin Hamad al-Hugayl)을 지명했다. 그의 임무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주택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수십만 자금이 소요되는 리야드 건설 프로젝트 현장을 감독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로 이라크에 인접해 매우 민감한 북부 국경 지역의 주지사, 지난 1월 말 메카 주지사에서 조용히 물러난 전 군주의 아들 마샤 알 빈 압둘라(Misha 'al bin 'Abdallah) 왕자를 지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인사 교체를 내부 분쟁의 또 다른 징표로 받아들였다. 참조, Bruce Reidel, "Another Royal Reshuffle in Saudi Arabia: King Salman Reorders His court Again," *Brookings: Middle East Politics and Policy* [MARKAZ blog],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4 July 2015, at <http://www.brookings.edu/blogs/markaz/posts/2015/07/14-saudi-royal-court-reshuffle-riedel>.

상황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서방 주요 국가들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하던 합의를 저버리고 태도를 바꿨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역시 적대감을 느끼게 됐다. 미국 정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재검토했다. 이런 분위기는 드러나게 이란에 개방적 자세를 취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최고조에 달했다. 타계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과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사우드 알 파이잘 왕자, 거의 모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 전개를 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미 여러 차례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80년이나 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 관계를 전환하고 정리할 것인지 궁금해했다. 흥미롭게도 미국 고위 관리들도 위기감을 느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살만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알 사우드 가문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래보다 현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게 분명하므로, 오바마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나 대규모 대표단 동행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은 완전히 화해할 가능성이 있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할 수도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과 GCC 동맹의 이익을 훼손하는 합의를 용납하지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알았다. 1999년 2월 8일 후세인 빈 타랄(Hussein's bin Talal) 요르단 국왕 장례식에 참석한 압둘라 국왕은 (당시 살만은 계승자 신분이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표단에 인사시키려 하자 클린턴에게 “대통령 각하, 친구 사이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살만 국왕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말을 전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몇몇 사람은 내막을 알지도 모른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미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이 대담한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방해받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은 분명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다. 어쨌거나 살만 국왕이 종파에 따라 분열된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놀랄 일은 아니다. 국왕이 지도자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오히려 살만 국왕은 즉위 후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지지세력을 단합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살만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 걸프 국

가들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CC 회원국 간 여전히 남아있는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걸프 지역 내 관계에 집중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알 나흐얀·알 마크툼 가문

2014년 1월 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aykh Khalifah bin Zayid Al Nahyan) 대통령은 뇌졸중 수술을 받았다. 대통령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이복동생이자 계승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aykh Muhammad bin Zayid Al Nahyan)이 국정 운영을 책임졌다. 나흐얀 계승자는 이미 UAE에서 가장 부유한 아부다비 에미리트(Abu Dhabi Emirate)를 통치하고 있었다. 연방 내각을 이끄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Shaykh Muhammad bin Rashid Al Maktoum) 두바이 통치자도 역시 중요한 인물이다. 무함

마드 빈 라쉬드는 연방 부통령직을 맡고 있고, 무함마드 빈 자이드는 병상에 있는 형을 대신하며 UAE 군의 부총사령관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발휘했다. UAE 전문가들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아부다비의 통치권과 연방 정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게 사실상 확실하므로 셰이크 칼리파가 사망하더라도 실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⁶³ 이념적 목표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도 아부다비와 두바이 양측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모두가 기대했다.

아부다비, 알 나흐얀 가문

[그림 6] UAE 대통령(아부다비):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자료: Ahmed Jadallah © REUTERS

2014년 셰이크 칼리파가 뇌졸중으로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미 2010년 초 병명을 공개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 스위스에 머무르자 건강에 대해 말이 많았다. 어떤 소식통은 칼리파가 말기 성대 암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설도 있어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1948년생으로 68세인 대통령의 건강이 쇠약해져 벌써부터 권력 이동이 시작됐다

[표 7] UAE 알 나흐얀-알 마크툼 가문 아부다비 및 두바이 주요 인물

아부다비	두바이
<p>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1948년생, 2004년부터 재위)</p>	<p>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UAE 부통령 겸 총리 (1948년생, 2006년부터 재위)</p>
<p>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계승자 (1960년생, 관계: 동생)</p>	<p>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마크툼 계승자 (관계: 둘째 아들)</p>
계승자 유력 후보	계승자 유력 후보
<p>하자 빈 자이드 알 나흐얀 국가안보보좌관 (1965년생, 관계: 동생)</p>	<p>마크툼 빈 무함마드 알 마크툼 두바이 부통치자 (관계: 아들)</p>
<p>술탄 빈 칼리파 알 나흐얀 아부다비 투자청 이사 (관계: 아들)</p>	<p>함단 빈 라쉬드 알 마크툼 두바이 부통치자 (관계: 동생)</p>

고 생각했다.⁶⁴ 언제든 때가 오면 아부다비의 계승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Muhammad bin Zayid, MBZ)는 대통령이 되고, 많은 국내 부족 지도자가 지지하는 MBZ의 형제 하자(Hazza)를 계승자로 정하면서 승계는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⁶⁵

MBZ의 진로는 2003년 아버지이자 당시 대통령이던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Zayid bin Sultan Al Nahyan)이 MBZ를 제2계승자로 지명했을 때 결정됐다. MBZ는 2004년 11월 2일 아버지가 타계하자 장차 아부다비 통치자 지위를 승계할 위치에 올랐다. 이복형제 셰이크 술탄 빈 자이드(Shaykh Sultan bin Zayid)와 친형제 셰이크 함단 빈 자이드(Shaykh Hamdan bin Zayid)가 부상할 가능성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계승자의 자리에 그냥 오른 것은 아니다. 두 경쟁자가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권력 기반을 쌓을 수 없게 되자 MBZ는 날개를 달았다. 최근 벌어진 중대한 사건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는 없어도 자이드의 아들로서 여전히 특권층에 속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MBZ가 셰이크 자이드가 사망하기 이전 1993년부터 국방군 참모총장 지위를 맡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공식 치안 자문이라는 고위직 임무를 수

63. UAE에는 승계 방식이 다른 일곱 개 지배 가문이 있다. 그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이후 논의는 일곱 가문 각자에 초점을 맞췄다. 자세한 배경 설명 참조,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279-348.

64. "Sheikh Khalifa's Condition Stable as He Recovers from Stroke," *The National*, 25 January 2014, at <http://www.thenational.ae/uae/sheikh-khalifas-condition-stable-as-he-recovers-from-stroke>. 다른 참조, F. Gregory Gause, III, "Understanding the Gulf States: Why the Monarchies of the Persian Gulf Fall Out and Get Back Together—and Why it matters for the Region and the World," *Democracy: A Journal of Ideas*, Issue #36, Spring 2015, at <http://www.democracyjournal.org/36/understanding-the-gulf-states.php?page=all>.

65.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uhammad bin Zayid Al Nahyan) 왕자가 (1971년부터 시작된 연방의 짧은 역사를 채워나갈 세 번째 인물로서) 차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다. 이보다 누가 차기 아부다비 계승자가 될 것인지를 궁금해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MBZ의 후계자로 1965년에 태어난 파티마(Fatimah) 왕비의 셋째 아들 하자 빈 자이드 알 나흐얀(Hazza' bin Zayid Al Nahyan)을 예상했다. 하자는 MBZ와 특별하게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으며, 현재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부회장과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고 있다. 이밖에 언급되는 인물은 2014년 3월부터 국가안보 차관보를 맡고 있는 타누 빈 자이드(Tahnun bin Zayid)와 서부 지역 통치자 대표 함단 빈 자이드(Hamdan bin Zayid)로, 두 사람은 파티마 왕비의 아들이다.

행함으로써 영향력을 키우고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무함마드 빈 자이드는 경솔한 젊은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술탄 빈 자이드와 셰이크 함단 빈 자이드를 포함한 가문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MBZ가 1990년대 초반부터 국방 분야에서 경력을 꾸준히 쌓아 올리고 군대를 변화시키면서 승계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MBZ는 본격적으로 나서 권력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써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걸프 지역에서 UAE가 특별한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5년 현재 55세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는 특히 국방·경제·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통상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MBZ는 9/11사태 이후 UAE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도적으로 고안했고, 오랫동안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 2005년 1월부터 군의 부 총사령관으로서 다양한 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MBZ는 아부다비 내에서도 셰이크 칼리파가 대통령에 오르기 이전부터 칼리파와 당시 계승자의 아들이자 셰이크 자이드가 가장 총애하던 장손자 술탄 빈 칼리파 알 나흐얀(Sultan bin Khalifah Al Nahyan)을 제치고 사실상 경제 개발 정책을 주도했다.⁶⁶

결과적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는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훈련을 받았고, 지인들은 그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말한다. 현재 MBZ가 지닌 권력의 정도를 보면 대통령이 돼도 UAE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BZ는 이슬람주의자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어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더 억압할 거란 우려가 있다. 2013년 이후 무슬림 형제단과 연계 단체를 겨냥해 대규모 재판과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MBZ는 이미 아랍의 봄 이전부터 이슬람주의자와 관련해 확고하게 견해를 밝혔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9년 2월 미국 외교 전문을 보면 당시 리처드 올슨(Richard Olson) 미국대사가 "무슬림 형제단이라 부르는 것은 MBZ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욕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

66. "Political Forces at a Glance," *Country Report on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1 July 2014, at <http://country.eiu.com/article.aspx?articleid=1712034355&Country=United%20Arab%20Emirates&topic=Summary&subtopic=Political+forces+at+a+glance>.

다] 이로 인해 UAE가 카타르와 이집트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과 대치하게 하여 걸프 지역에 반향을 일으킨 점을 주목해야 한다.⁶⁷ 특히 예멘의 후티 반군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UAE가 참여한 결정과 같이, 최근 걸프 지역 사태를 보면 MBZ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과잉 반응과 이슬람주의자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UAE의 대응 조치가 MBZ에게 아직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MBZ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두바이, 알 마크툼 가문

[그림 7] UAE 부통령(두바이):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자료: Jumana El Heloueh © REUTERS

67. Richard Olson, "Strong Words in Private from MBZ at IDEX—Bashes Iran, Qatar, Russia," Department of State Cable Number 09ABUDHABI193_a, 25 February 2009, at https://www.wikileaks.org/plusd/cables/09ABUDHABI193_a.html.

2008년 2월 1일 두바이 통치자이자 UAE 부통령 겸 총리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Shaykh Muhammad bin Rashid Al Maktoum, MBR)은 차남 셰이크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마크툼(Shaykh Hamdan bin Muhammad Al Maktoum, HBM)을 두바이 계승자로 책봉했다.⁶⁸ 아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고위직을 부여하고, 지난 수년간 비공식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며 철저히 훈련한 과정을 고려한다면, 25세 젊은이를 지명한 사실이 놀랍지는 않다. 무함마드 빈 라쉬드는 두바이의 정권 승계를 강화하면서 1995년 부통치자가 된 숙부 셰이크 함단 빈 라쉬드 알 마크툼(Shaykh Hamdan bin Rashid Al Maktoum)과 함께 자신의 다른 아들 셰이크 마크툼 빈 무함마드 알 마크툼(Shaykh Maktoum bin Muhammad Al Maktoum, MBM)을 부통치자로 임명했다. 셰이크 함단은 UAE의 재무산업부 장관직도 맡았다.⁶⁹

함단 빈 무함마드는 1982년 11월 14일생이며 MBR이 첫째 부인 셰이카 힌드 빈트 마크툼 빈 줘마(Shaykhah Hind bint Maktoum bin Jumma) 사이에서 얻은 둘째 아들이다. 계승자는 2001년 샌드허스트 영국 왕립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해, 말하자면 고속 승진해 두바이 은행(Dubai Bank) 총재로 임명됐다.⁷⁰ 2006년 9월에는 두바이 집행위원회(Dubai Executive Council) 회장이라는 고위직에 올랐다. 그는 두바이의 모든 정부 기관을 관장하는 임무와 두바이 전략 계획(2015 Dubai Strategic Plan) 완성과 관련된 한층 야심 찬 업무에 투입됐다. 두바이 통치자는 계승자에게 두바이 스포츠위원회(Dubai Sports Council), 두바이 자폐 센터(Dubai Autism Centre), 무함마드 빈 라쉬드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 기구(Muhammad bin Rashid Establishment for Young Business Leaders)의 회장직을 추가로 맡겼다. 계승자는 육상과 승마를 열정적으로 좋아해 여러 스포츠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신예 시

68. 무함마드 빈 라쉬드의 장남 라쉬드는 정치적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통치자의 집무실에서 벌어진 비서의 죽음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행보는 끝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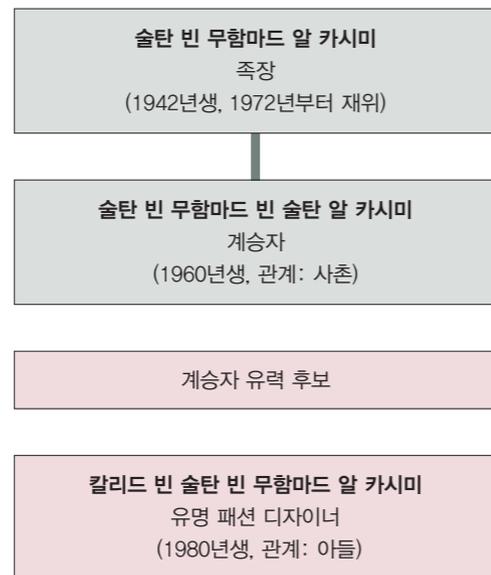
69. "Shaikh Hamdan Appointed Dubai's Crown Prince," *Gulf News*, 1 February 2008, p. 1, at <http://archive.gulfnews.com/articles/08/02/01/10186492.html>.

70. M. Satyanarayan, "Sheikh Hamdan Excels," *Gulf News*, 9 September 2001, p. 1, at <http://m.gulfnews.com/news/uae/general/sheikh-hamdan-excels-1.424502>. 다른 참조, "Chairman Appointed for New Dubai Bank," *Al-Bawaba*, 8 July 2002, <http://www.albawaba.com/business/chairman-appointed-new-dubai-bank>.

인으로서, 뛰어난 아랍 기사 파자(Fazza)의 이름을 따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계승자가 두바이의 장자 상속 제도에 의해 결정됐고 주변에서도 인기가 높지만, 숙부들과 다른 친척 특히 친동생 무함마드 빈 무함마드 빈 라쉬드(Muhammad bin Muhammad bin Rashid)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로써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무함마드가 두바이 미디어시티(Dubai Media City), 두바이 인터넷시티(Dubai Internet City), 지식센터(Knowledge Village)를 확대하는 일과 두바이 기술·미디어 자유구역(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 회장 임무를 수행하느라 바빠서 두바이의 승계는 안전해 보인다. 무함마드 빈 무함마드는 대중 앞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국제 문제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UAE 내에서 두바이의 이익을 보호하고, 두바이의 권력 기반을 지키고 확대하겠다는 명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형제는 협력할 게 분명하다.

샤르자, 알 카시미 가문

[표 8] UAE 샤르자, 알 카시미 가문 주요 인물



알 카시미(Al-Qasimi) 가문이 통치하는 소규모 왕국 샤르자(Sharjah)는 입헌 군주제 형태와 가장 유사하다. 셰이크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Shaykh Sultan bin

Muhammad Al-Qasimi)가 1972년부터 통치하고 있으며 [(1987년 쿠데타 시도 때문에 6일간 공백이 있었으나 연방 대통령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Shaykh Zayid bin Sultan Al Nahyan)이 노련하게 처리했다)]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가 주요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UAE 내 다른 에미리트와 달리 자문위원회 마즐리스 알 슈라(Majlis Al-Shurah)가 어느 정도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셰이크 술탄은 1939년 7월 6일 태어났다. 학식이 높았던 부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사크르 빈 칼리드 알 카시미(Shaykh Muhammad bin Saqr bin Khalid Al Qasimi)와 모친 셰이카 마리암 빈트 가님 빈 살림 알 샴시(Shaykhah Maryam Bint Ghanim bin Salim Al Shamsi)는 혹독한 환경의 샤르자에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유년 시절 술탄은 샤르자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쿠웨이트로 가서 현대 문물을 접했다. 학구열에 불타던 술탄은 쿠웨이트에서 이집트로 건너가 카이로 대학(Cairo University)에서 1971년 농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나 농업이 천직은 아니었다. 계승자 위치에 올라 조국의 오랜 역사를 인식한 후, 영국 엑서터대학(Exeter University)에 입학해 1985년 뛰어난 성적으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에서 정치학으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셰이크 술탄은 세계 우수 대학교에서 적어도 16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술탄은 아랍어뿐 아니라 영어로 다수의 원고와 극본을 출간해 자신의 학식을 입증했다.⁷¹

셰이크 술탄은 두 번 결혼해, 셰이카 모자 빈트 살림 빈 무함마드 빈 마니 알 팔라시(Shaykhah Mawzah bint Salim bin Muhammad bin Mani' al-Falasi) 사이에 두 자녀를 얻었고, 셰이카 자와히르 빈트 무함마드 빈 술탄 빈 사크르 알 카시미(Shaykhah Jawahir bint Muhammad bin Sultan bin Saqr Al Qasimi) 사이에 네 자녀를 얻었다. 장남 무함마드는 1999년에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으며 막내아들 셰이크 칼리드는 1980년에 태어났다.⁷²

1990년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는 가문 내 두 계파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 통치자 사크르 빈 술탄(Saqr bin Sultan)의 동생 아흐마드 빈 술탄(Ahmad bin Sultan)을 계승자로 임명했다. 술탄이 자기 아들 무함마드를 계승자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이 조치를 임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함마드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다. 4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1999년 5월 통

치자는 유능한 사촌이자, 사랑하는 부인 자와히르의 형제 술탄 빈 무함마드 빈 술탄(Sultan bin Muhammad bin Sultan)을 계승자로 책봉했다. (통치자 이름과 계승자 이름이 비슷해 구분하기 위해 할아버지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셰이크 술탄이 샤르자의 계승권을 젊은 아들 칼리드에게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그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술탄 빈 무함마드 빈 술탄은 계승자로서 역량을 발휘했고 샤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힘썼다. 계승자는 UAE 내 정치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해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게다가 술탄 빈 무함마드는 통치자가 자기 분파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알 카시미 가문 내 여러 경쟁자를 견제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통치자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71. 셰이크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Shaykh Sultan bin Muhammad Al Qasimi)는 아라비아에서 적어도 8편의 희곡—*Torgut* (2011), *al-Hajar al-Aswad* [The Black Stone] (2011), *Shamshun al-Jabbar* [Samson the Courageous] (2009), *Al-Namrud* [Nimrod] (2008), *Iskandar al-Akbar* [Alexander the Great] (2006), *al-Waqi'—Sura Tabaq al-Asl* [The Reality—Copy of the Original] (2000), *Al-Qadiyyah* [The Case] (2000), and *'Awdat Hulaku* [The Return of Holako] (1998)—을 발표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다양한 영문 역사책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 편집자들이 알 카시미 간행물 협회(Al-Qasimi Publications) 허가를 받고 유럽과 아시아 언어, 아랍어로도 출간했다. *Taking the Reins: The Critical Years 1971-1977*, London: Bloomsbury, 2012; *Sharjah Air Station Between East and West*, 2012; *Muscat and other Forts on the Shoreline of the Gulf of Oman*, 2009; *Memorandum on Kuwait: The Biography of Sheikh Mubarak Al Sabah*, 2004; *A Memorandum for Historians on the Innocence of Ibn Majid*, 2000; *Power Struggles and Trade in the Gulf (1620-1820)*, London: Forest Row, 1999; *The Gulf in Historic Maps (1478-1861)*, Leicester, UK: Streamline Press Limited, 1999; *The Journals of David Seton in the Gulf, 1800-1809*, Exeter, UK: BPC Wheatons Ltd., 1995; *John Malcolm and the British Commercial Base in the Gulf 1800*, 1994; *Omani-French Relations (1715-1905)*, London: Forest Row, 1993; and *The Myth of Arab Piracy in the Gulf*, London: Croom Helm, 1986.
72. 영국 언론은 무함마드가 코카인을 과다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참조, "Mystery Death of Sheikh, Aged 24," *The Argus*, 8 April 1999, at <http://archive.theargus.co.uk/1999/4/8/198180.html>.

라스 알 카이마, 알 카시미 가문

[표 9] UAE 라스 알 카이마, 알 카시미 가문 주요 인물



라스 알 카이마(Ras al-Khaimah)는 통치자가 분할 지배전략을 사용해 통치 가문 구성원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종종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패권을 노리는 두 라이벌 형제와 아부다비와 두바이 (인접국 오만도 포함) 지지자들 간에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이다. 사건은 1948년 권력을 잡아 2010년까지 통치했던 카와심(Qawasim) 알 카시미(Al Qasimi) 부족의 셰이크 사크르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Saykh Saqr bin Muhammad Al Qasimi) 통치자가 2003년 계승자를 교체하면서 벌어졌다. 2003년 6월 14일 통치자의 장남이자 1958년부터 계승자였던 셰이크 칼리드 빈 사크르 알 카시미(Shaykh Khalid bin Saqr Al Qasimi)에서 셰이크 사우드 빈 사크르(Shaykh Sa'ud bin Saqr)로 계승자를 교체했다. 불행하게도 라스 알 카이마는 고질적인 갈등 때문에, 완곡하게 말하자면 예전보다 더 고립되는 처지가 됐다.⁷³

73.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322-330.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전략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라스 알 카이마는 거의 매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부분은 통치자의 역량 덕분이었다. 셰이크 사크르는 두바이에 대해 아부다비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이로 인해 갓 출범한 UAE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라스 알 카이마는 1971년에 출범한 UAE 가입을 미뤘다. (다른 여섯 에미리트보다 6개월 가량 늦은 1972년에 가입했다.) 셰이크 사크르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이 북부의 라스 알 카이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 그렇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생각보다 훨씬 관대했다) 라스 알 카이마의 탄화수소 매장량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 위치를 확보하기에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셰이크 사크르는 부유한 이웃 에미리트와 동등한 동반자라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굴복하는 처지가 됐다. 다른 에미리트가 발전하는 동안 여전히 셰이크 사크르는 국민의 헌신에 의지했기 때문에 국민이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묵인했다. 부족장들은 여전히 셰이크에 충직했으나 UAE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점점 더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셰이크 사크르와 자식들이 정부의 여러 요직을 맡아 라스 알 카이마는 연방 보조금을 충실히 운영했고 모두가 혜택을 받았다.

결국 2003년 계승자 교체를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 여러 왕궁 앞에 탱크가 배치될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셰이크 사크르가 취한 조치들이 눈에 띈다. 라스 알 카이마가 당면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통치자는 셰이크 칼리드 계승자가 이란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이라크 전쟁이 최고조에 이를 때 미국을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고 알려지면서, 계승자를 셋째 아들 사우드(Sa'ud)로 교체했다. 라스 알 카이마는 힘 있고 부유한 이웃들과 비교해 경제가 거의 다각화되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개발 관련 논의는 적절했지만, 사우드의 모친이 연관된 궁중 암투가 이 사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한다. 사우드는 부동산과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로 약속했다. 라스 알 카이마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으며 아부다비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 셰이크 칼리드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부다비의 알 나흐얀 가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망명길에 올라 오만으로 도피한 후 미국과 영국에 머물렀다. 칼리드는 여러 번 복귀를 시도했다. 2010년 10월 27일 셰이크 사크르가 타계하자 칼리드는 라스 알 카이마에 돌아왔다. 그는 2003년 이전 왕궁에서 대치하며 아부다비가 자기의 통치권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렸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을 거부당하고, 아부다비가 이끄

는 연방 정부가 라스 알 카이마의 새 통치자로 사우드가 임명된 것을 축하함으로써 칼리드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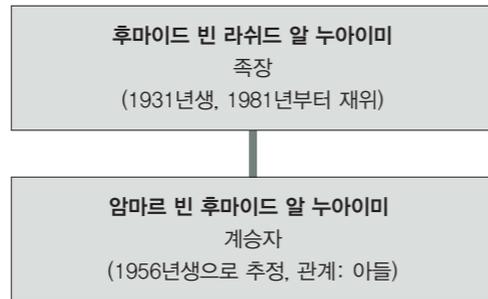
칼리드의 지인들은 칼리드가 여전히 권력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지만, 연방 최고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과 라스 알 카이마의 미래를 논의하려던 칼리드의 노력은 라스 알 카이마에서 밀려나면서 물거품이 됐다. 특히 라스 알 카이마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이런 난제는 당연히 셰이크 사우드의 통치를 약화할 것이며, 향후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사태는 받아들이기 불편했지만 공개적으로 다뤄야 했던 사안이다. 아부다비가 라스 알 카이마 문제에 공공연히 개입했기 때문에 2003년 승계는 사우드의 정통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셰이크 칼리드와 사우드가 아부다비의 간섭 없이 부족 지도자들과 함께 셰이크 사크르의 후계자를 결정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가정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 UAE가 거대한 연방 기구로 자리잡으면서 향후 다른 작은 에미리트에 적용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선례를 남겼다.

아즈만, 알 누아이미 가문

통치 가문 인원수로 따지면 알 누아이미(Al Na'a'imi)는 걸프 아래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가문이다. 이에 걸프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피해를 봤다. 가문의 구성원들이 오만 내 부라이미/알 아인(Buraymi/Al-Ayn) 지역과 라스

74.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세 사항 참조, Richard Myddleton, "RAK Heir Change Prompts Meeting," *Seven Days* (Dubai), 20 June 2003, pp. 1, 5; Shafiq Al-Asadi, "Mubadarat 'Umaniyyah li-Taswi'at al-Khilaf fi Ras al-Khaimah" [Oman Intervention to Compromise on the Ras al-Khaimah Dispute], *Al-Hayat*, Number 14707, 30 June 2003, p. 2; "RAK Ruler Receives Well-Wishers," *Gulf News*, 16 June 2003, p. 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ragility of Succession Rights Highlighted," *Country Report-UAE 3-2003*, August 2003, p. 14; and "UAE: The Ras al-Khaimah Succession Crisis," *The Estimate*, 4 July 2003, p. 1. 다른 참조, Susan Bisset, "Emirates Prince Ousted in Women's Rights Row," *The Daily Telegraph*, 15 June 2003, at <http://www.telegraph.co.uk/news/main.jhtml?xml=/news/2003/06/15/wcoup15.xml>; and Simon Henderson, "Succession Politics in the Conservative Arab Gulf States: The Weekend's Events in Ras al-Khaimah," Washington, D.C.: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Policywatch*, Number 769, 17 June 2003.

[표 10] UAE 아즈만, 알 누아이미 가문 주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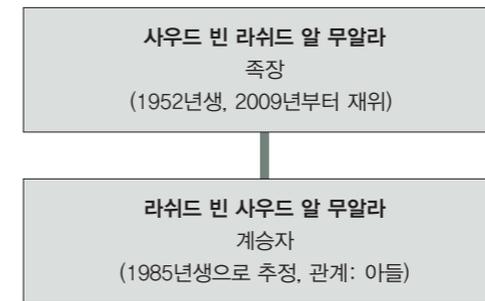


알 카이마에 흠어져 있어 아흐마드 빈 라쉬드 빈 후마이드 알 누아이미(Ahmad bin Rashid bin Humayd Al Na'aimi)는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두바이와 인접해 아즈만(Ajman) 지도자들은 마크툼 가문의 마음을 사려고 우호 정책을 펼쳤다.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이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지원하는데도, 두바이를 선호하는 정책 때문에 알 누아이미가 항상 고마워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풍겼다. 셰이크 아흐마드는 아부다비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지시를 순순히 따르지도 않아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했다. 두바이의 알 마크툼 가문과 관계를 회복한 조치가 전술적이었는지 전략적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샤르자와 두바이, 아부다비의 더 강력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아즈만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부족의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셰이크 후마이드 빈 라쉬드(Shaykh Humayd bin Rashid)는 1931년에 태어났으며 아즈만과 두바이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카이로로 옮겨갔다. 1971년 UAE 창설 때 셰이크 후마이드는 부통치자 자리에 있었다. 병석에 누워 있는 부친을 대신해 여러 위원회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서서히 형 알리 빈 라쉬드('Ali bin Rashid)를 밀어냈다. 작은 어촌을 역동적인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열망을 품고, 1981년 9월 6일 부친에 이어 통치자의 위치에 올랐다. 아즈만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로 서서히 바뀌면서 수천 명의 두바이 근로자들이 거주하게 되자, 두바이와 밀접한 관계가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장남이자 계승자 셰이크 암마르 빈 후마이드 알 누아이미(Shaykh 'Ammar bin Humayd Al Na'aimi)는 아즈만 집행이사회 의 회장이기도 하다.⁷⁵

움 알콰인, 알 무알라 가문

[표 11] UAE 움 알콰인, 알 무알라 가문 주요 인물



아부다비와 함께 유일하게 영토가 분리돼 있지 않은 움 알콰인(Umm al-Qiwayn)은 무엇보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알 무알라(Al Mu'allah) 가문이 수월하게 통치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알 알리(Al 'Ali) 부족에 속하는 통치 가문은 1844년 알리 빈 압둘라('Ali bin 'Abdallah)가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 독보적으로 오랫동안 통치 가문의 지위를 누렸다. 내부에서 생긴 모든 분쟁은 알 카시미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영국에서 파견한 외교관들이 계속해서 통치 가문을 적대적으로 취급하면서 발생했다. 1907년 부족한 천연자원을 두고 부족끼리 격돌하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형적인 부족 전쟁에서 아부다비의 자이드 빈 칼리파(Zayid bin Khalifah)가 라쉬드 빈 아흐마드(Rashid bin Ahmad)를 투옥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셰이크 라쉬드는 단지 이웃들을 상대로만 충돌한 게 아니었다. 1912년부터 1917년 사이, 라쉬드는 상속 문제로 이복동생 나세르 빈 아흐마드(Nasir bin Ahmad)와도 갈등에 휘말렸다. 1922년 8월 아들 압둘라가 승계했지만 약 1년간 통치하던 중 노예 한 명이 그를 살해했다. 표면적으로는 하찮은 일 때문에 벌어졌지만, 사실은 사촌 하마드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하마드 빈 이브라힘(Hamad bin Ibrahim)은 전형적인 쿠데타를 일으켜 사실상 권력을 잡았고 라스 알 카이마에 살고 있던 숙부 사이드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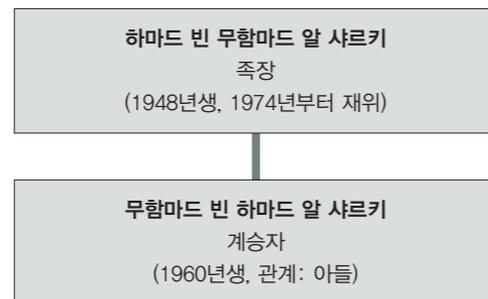
75.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330-333.

아흐마드(Sa'id bin Ahmad)와 화해를 시도했다. 1929년 2월 13일 앞을 보지 못하는 숙부 압둘 라흐만('Abdul Rahman)의 하인들에게 살해되면서 하마드의 통치는 끔찍하게 끝이 났다. 이후 하마드 빈 이브라힘이 살해했던 압둘라 통치자의 형제 아흐마드 빈 라쉬드(Ahmad bin Rashid)가 통치자의 자리를 물려받았다.⁷⁶

권력을 넘겨받았을 때 겨우 18세였던 아흐마드는 영국과의 조약을 받아들이고 1981년까지 평화롭게 통치했다. 말년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방 관련 업무 대부분을 아들 라쉬드에 넘겼다. 라쉬드는 1981년 2월 22일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다. 2009년 1월 2일 셰이크 라쉬드가 타계하자 아들 사우드가 그 뒤를 이었다. 1952년 10월 1일생인 셰이크 사우드(Shaykh Sa'ud)는 움 알콰인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레바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카이로 대학교에 입학해 1974년 경제학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계승자로 지명된 사우드는 라스 알 카이마 통치자의 여동생 셰이카 수마이야 빈트 사크르 빈트 무함마드 알 카시미(Shaykhah Sumayyah bint Saqr bint Muhammad Al Qasimi)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자녀 열 명을 얻었고, 셰이크 라쉬드 빈 사우드 빈 라쉬드 알 무알라(Shaykh Rashid bin Sa'ud bin Rashid Al Mu'allah)가 장자 상속 제도를 따라 부친에 이어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다.

푸자이라, 알 샤흐키 가문

[표 12] UAE 푸자이라, 알 샤흐키 주요 인물



푸자이라(Fujairah)는 걸프 남부 지역의 역사를 장식한 알 카시미 가문의 전설적 지도자 술탄 빈 사크르(Sultan bin Saqr)가 사망하고 1866년경 최초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알 샤흐키(Al Shakhri) 가문은 1952년 3월 23일 샤흐자의 알 카시미 가문으로부터 푸자이라 에미리트의 통치권을 완전히 넘겨받았다. 이후 계속해서 푸자이라의 통치자들은 영토 경계선을 새로 그려가며 통치 가문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그 결과 오늘날의 푸자이라가 존재하게 됐지만, 영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실제로 통치하기가 복잡하다. 3개의 부속 도시와 다른 에미리트 영토 내에 고립된 2개의 구역이 있으며, 오만 해에 인접한 물리적 위치 때문에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알 카시미와 오만의 알 사이드 가문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놓고 다투면서 다른 부족까지 끌어들이며 분쟁을 확대한 바람에 영토가 뿔뿔이 흩어졌다. 영국에서 파견된 외교관들과 알 카시미 출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려했다. 결국, 분리 통치 방식이 계속 유지됐는데, 푸자이라에 리더십이나 유형 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니었다.

다행히 영국이 오만의 푸자이라 소유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2년 영국 정부가 걸프 남쪽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던 상업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무함마드 빈 하마드(Muhammad bin Hamad)의 인내는 결실을 얻었다. 영국은 무함마드가 석유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알 카시미 가문이 샤흐자(Sharjah)와 라스 알 카이마(Ras al-Khaimah), 칼바(Kalbah)로 분화된 것을 오랫동안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해상통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푸자이라의 자치권을 인정하게 된다. 당연히 통치자는 1820년 일반평화협정과 1853년 영구적 평화조약을 포함해 영국이 제시한 여러 조건을 수용했다. 당시 샤흐자와 라스 알 카이마의 통치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무시되고 말았다. 불신이 쌓이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무함마드 빈 하마드는 샤흐자와 라스 알 카이마의 통치자들과 여러 번 불화를 일으켰고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영국 외교관들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⁷⁷

푸자이라의 통치자 셰이크 하마드 빈 무함마드 알 샤흐키(Shaykh Hamad bin Muhammad Al Shakhri)는 1948년 9월 22일에 태어났으며 UAE의 일곱 통치자 중

76.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333-336.

77. Kéchichian, Power and Succession, *op. cit.*, pp. 336-339.

에 교육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통치자는 영국 이스트본 스쿨(Eastbourne School of English)을 다녔고, 몬스 사관학교(Mons Military Academy)를 졸업했다. 귀국 하자마자 왕위에 오르기 전 몇 년 동안 농수산부 장관을 맡았고, 1974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쥐었다. 셰이크 파티마 빈트 타니 알 마크툼(Shaykhah Fatima bint Thani Al Maktoum)과 결혼해 자녀 6명을 얻었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하마드 빈 무함마드 알 샤르키(Shaykh Muhammad bin Hamad bin Muhammad Al Sharqi)가 장자 상속 제도를 따라 부친을 승계할 예정이다.

수완이 좋은 셰이크 하마드는 푸자이라를 진심으로 아끼는 아부다비 통치자 셰이크 자이드의 환심을 얻어 수년간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하마드의 타고난 능력 때문에 자이드는 UN 총회나 아랍국가연맹 회담 같은 국제회의에 하마드를 UAE 대표로 참석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빈틈없는 하마드는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푸자이라의 전통에 따라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공무원 문호를 개방했으며 투자 유입을 증가시켰다. 셰이크 하마드는 작은 푸자이라 에미리트를 UAE의 실질적 자산으로 점차 탈바꿈시키고, 오만 만에서 푸자이라의 전략적 지위를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치자의 업적은 아부다비에서 뻗어 나온 새 파이프라인을 통해 푸자이라가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과 더불어 계승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이런 결론을 정확하게 뒷받침한다.

결론

지난 수십 년간 아랍 걸프국들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기보다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역사적으로 아랍 걸프의 통치 가문은 승계와 관련해 자기만의 고민거리가 있었다. 통치자가 세상을 떠날 경우 지명된 계승자가 대부분 별 탈 없이 권좌에 올랐다. 계승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다른 예외 없이 기존 통치 계급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다룬 몇몇 왕가는 고령의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권력이 넘어갈지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나라마다 각자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계승자 선정 작업 논의가 밀실에서 은밀하게 진행된다. 지배 가문의 유력 인사가 불만을 가질 경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승계 절차를 관리할 새로운 원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통치 가문 사이에 결코 무시 못할 도전이 항상 벌어졌지만, 바레인, 카타르, UAE의 여러 통치 가문은 장자 계승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승계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쿠웨이트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혼재된 승계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다음 세대에 어떤 방식으로 넘어갈지 결정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 문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 6개의 보수적인 아랍 걸프 군주국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권력의 책임을 넘겨받을지는 지극히 중대한 사안이며 향후 몇 세대가 지나도 그 중요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ASAN
REPORT

아랍 걸프 군주국의 왕위 승계 문제

발행일 2016년 1월

지은이 조셉 케쉬시안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134-8 93300 비매품



9 791155 701348 비매품
ISBN 979-11-5570-134-8